

카자흐스탄의 재계 현황과 재계 엘리트의 특징 : 정치권력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황 영 삼

한국외대, 중앙아시아연구소

< 목 차 >

I. 서론	V. 결론
II. 카자흐스탄 재계 형성의 객관적 환경	참고문헌
III. 재계 엘리트의 실체 - 재벌(산업-금융가)	Abstract
IV. 재계 엘리트와 정치권력	

Key words(중심용어): 카자흐스탄(Kazakhstan), 재계 엘리트(Business Elite), 금융-산업 그룹(Financial-Industrial Group), 삼룩-카지나(Samruk-Kazyna), 자흐미스(Kazakhmys)

국 문 요 약

카자흐스탄의 경제가 발달하고 비즈니스가 성장하면서 경제적 부를 고도로 축적한 비즈니스 엘리트들이 2000년대 중반 이후 등장하였다. 이들 엘리트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순수 민간인 기업가로 볼 수 있는 집단이며 다른 하나는 국영기업의 임원들이 경제 관료집단이다.

순수 민간인 기업가 집단은 금융-산업자본가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일, 가스, 금속광물을 토대로 사업에 성공한 사람들이며 세계적인 금융저널인 <포브스>에 등재되는 재벌들이다. 지금까지 카자흐스탄 억만장자는 모두 9명인데 그 중에서 가장 큰 부호는 블라디미르 김이다. 그러나 이들 부호들의 성장에는 대통령의 지원없이 불가능한 면이 많았기 때문에 이들의 비즈니스 활동에 정치권력이 연관되지 않을 수 없었다.

관료 비즈니스 엘리트라고 볼 수 있는 기관은 바로 삼룩-카지나 임원들이다. 카자흐스탄 총리가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는 '삼룩-카지나'의 핵심인물은 바로 티무르 쿨리바예프이다. 쿨리바예프는 <포브스> 억만장자에 속하는 민간인 기업가로서 분류되는 동시에 '삼룩-카지나'의 핵심

* 이 논문은 2009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인문사회연구역량강화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KRF-2009-32A-B00157).

멤버로서 카자흐스탄 재계의 실질적인 최고 실력자로 간주된다. '삼룩-카지나' 임원들은 장관급 5명을 포함하여 경제계 관료들인데 이들은 모두 대통령에 의하여 임명되었기 때문에 대통령 측근들에 속한다.

따라서 현재 카자흐스탄에서 비즈니스 엘리트라고 할 수 있는 억만장자와 '삼룩-카지나' 임원들은 대통령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으며 대통령에 우호적인 인물들이다. 이 뜻은 카자흐스탄에서 큰 비즈니스를 하려면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뜻이고 동시에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만이 비즈니스 엘리트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I. 서 론

1. 문제의 제기

카자흐스탄은 신생 중앙아시아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경제성장과 기업의 양적 확대가 성공적으로 진행된 국가이다. 이러한 성공의 배경에는 1990년대에 적극적으로 추진된 시장경제 제도와 외국자본의 유치 그리고 무엇보다도 높은 유가가 있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고도의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한 것은 카자흐스탄의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물론 2008년부터 미국 금융위기가 카자흐스탄 시장에 파급되면서 현재까지 경제적 구조조정 단계에 있기는 하지만 독립 이후의 시기를 통틀어 볼 때 카자흐스탄이 경제적으로 많은 발전을 하고 있다는 것은 부인하기 힘든 사실이다.

카자흐스탄이 원유와 가스 및 기타 광물자원을 근거로 국부를 증대하고 있는 대표적인 자원대국임은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이며 이들 자원을 확보하려고 미국과 중국 등 주변 강대국들이 경제적 투자를 실행해 왔다. 경제가 발전하면서 기업체가 설립 확대되고 일부에는 재벌에 해당하는 산업-금융그룹이 등장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20년' 이라는 비교적 짧은 시기에 나타난 카자흐스탄의 특징적인 현상이었는데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 국가 중에서 비즈니스 활동이 가장 활발했던 국가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경제적 실리를 목적으로 한 기업체들 간의 경쟁 또한 치열하게 나타나는데 이에 관한 복잡한 역학관계에 대해서는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이다. 또한 시장경제를 표방하면서도 국영기업체의 경제적 비중은 현재 카자흐스탄의 국가적인 차원에서 볼 때 매우 크다. 동시에 강력한 정치적 기반을 근간으로 하는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의 재계에 대한 영향력은 주요 자원에 관한 국가통제, 즉 국영기업체의 강화, 국가자산 운용기금 및 나아가 금융구조 조정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 더욱이 재계 엘리트들이 정계에 기용되고 다시 대통령 주변에 재배치되는 등 카자흐스탄에서 보여지는 정치권력과 재계의 상호관계 또한 복잡하게 얽혀있는 문제로 생각된다. 간단히 말하자면 정계와 무관한 재계의 정립이 카자흐스탄에서는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

1991년 국가독립 이후 카자흐스탄에는 크고 작은 많은 기업체들이 등장하였는데 대개 막대한

경제적 실리를 취할 수 있었던 분야는 원유와 관련된 에너지 산업과 구리, 알루미늄, 아연 등 1차 광물자원과 관련된 것이 주종이었다. 제조업 분야는 비교적 약했고 건설 부문은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성장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금융 분야였는데 서구 선진국에 비하면 전체 규모가 크지는 않았지만 시장경제를 표방하고 있던 카자흐스탄에 금융 부문을 장악한다는 것은 곧 재계 권력을 장악하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래서 대개 정계 실력가 혹은 일부 재계 재벌들은 자체 금융기관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대주주로서 행사하는 경우가 많다.

2008-9년의 경제위기를 겪을 때까지 카자흐스탄은 분명히 중앙아시아를 선도하는 개발도상국으로서 세계의 무대로 등장하였음에 분명하다. 이와 동시에 카자흐스탄의 재계 엘리트들이 다수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이들 재계 엘리트들의 형성 과정이나 구조적 속성에 관한 분석은 대체적으로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더구나 카자흐스탄에는 이미 2010년을 기준으로 볼 때 <포브스>지가 인정하는 통산 9명의 세계적 억만장자가 있으며 그 외에도 정치권력과의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엘리트들도 분포되어 있다. 본 논문은 경제성장을 구가하고 있던 카자흐스탄에서 어떤 과정으로 그리고 어떤 분야에서 재계 엘리트들이 형성되었고 그리고 이러한 엘리트들의 구조적 특성이 어떠한지를 이들의 출신경력 분석을 바탕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카자흐스탄의 기업환경과 경제적 실정 그리고 정치와 경제와의 연관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고, 중요한 점은 대통령과 관련한 정경유착의 정도를 가늠해보는데 기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카자흐스탄에서 중소기업 아닌 거대기업을 경영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바로 뛰어난 경영수완도 필요하지만 본질적인 것은 대통령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한 것일 수도 있다는 사실도 주장하려고 한다.

2. 기존 연구의 검토

카자흐스탄 엘리트에 관한 저서는 2000년 이후 꾸준히 발간되어 왔다. 그 중에서 본 주제와 관련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알렉산드르 아게예프(Александр Агеев) 외 3인이 관련 인물을 중심으로 인터뷰한 내용을 엮은 <Элита Казахстана: Власть-Бизнес-Общество (카자흐스탄 엘리트: 정계-재계-사회계)>라 할 것이다. 동 저서는 카자흐스탄의 엘리트를 정치, 국영기업체, 민간기업체, 사회기관 영역으로 나누어 대표적인 인물 총 26명에 대한 인터뷰 내용과 약력, 기관소개 등을 담고 있다(Агеев et. al. 2008). 특히 새롭게 기용된 국영기업 및 민간기업 엘리트들이 중점적으로 분석되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 도움이 되었다. 그리고 인명록인 <Кто есть кто в Казахстане: Биографическая энциклопедия 2007-08 (카자흐스탄 인명록: 2007-2008)>(Ашимбаев 2008), <Кто есть Кто: Промышленность Казахстана (카자흐스탄 기업인 인명록)>(Асылбеков 2008) 등은 엘리트들의 이력을 확인하는데 귀중한 자료가 되었다. 그리고 다니야르 아습바예프를 비롯한 전문가들의 정치권력에 관한 분석서인 <Казахстан: История власти - опыт реконструкции (카자흐스탄: 권력의 역사-재조정의 경험)>(Ашимбаев и др 2008)은 정치권력과 재계 엘리트의 관계를 밝혀주고 있다. 다니야르 아습바예프는 인터넷이나 저널을 통해서도 카자흐스탄의 권력구조와 권력승계 문제를 분석하고 있는 사회평론가이다. 독립

이후의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권력엘리트의 속성을 비교분석한 논문을 제출한 바 있는 강평기는 카자흐스탄의 재벌기업체 엘리트들이 독자적인 정치력을 보유하고 있고 일상적 정치과정과 심지어 국가 대통령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능력이 있다고 보았다(Кан 2006, 147-152). 물론 이러한 논의는 재벌기업가 세력과 대통령의 권력 간의 역학관계가 어떻게 설정되는지에 대한 문제점을 주고 있는데 즉 오히려 대통령의 힘이 이들 재벌기업가들의 운신의 폭을 결정할 수도 있다는 견해와 대립된다.

영어권 연구로는 샬리 커밍스(Sally N. Cummings)의 단행본 <Kazakhstan: Power and the Elite>(Cummings 2005; 2006)가 있는데 저자는 카자흐스탄의 권력엘리트에 대하여 역사적 형성 과정, 사회적 배경, 권력 기관 등 주요 항목으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었고 본 연구 진행의 기본적 텍스트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동 저서는 2001년까지의 상황만 분석대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최근의 상황은 별도의 연구가 동반되어야 하였다. 카자흐스탄의 재계와 정계 관계를 다룬 것으로는 하이디 크재르넷(Heidi Kjærnet) 등 3인이 작성한 글(Kjærnet et. al. 2008, 95-107)이 있는데 필자들은 카자흐스탄 최고위 권력층과 재계집단이 공생 관계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바르바라 주니스바이(Barbara Junisbai)는 카자흐스탄의 재계 엘리트 문제를 다루면서 권력투쟁은 바로 재계 집단 내의 경쟁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분석하였다(Junisbai 2010, 235-269). 동 논문은 가장 최근의 재계 구도변화까지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동시에 인터뷰 내용까지 포괄하고 있는 방대한 연구자료라고 볼 수 있으며 본 논문 작성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국내 학계의 연구동향을 보면 본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기간인 2009년에 카자흐스탄 엘리트에 관한 단행본(이재영 2009)이 출간된 바 있는데 정치엘리트를 중심으로 한 카자흐스탄 최신 정치동향에 대한 이해에 기여하고 있다. 동 저서에도 카자흐스탄 재계엘리트가 일부 소개되어 있지만 심층적 분석에는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사실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중앙아시아' 라는 보다 넓은 지역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인 주제를 다루는 방식이 이제는 전개될 것으로 본다. 인근 지역인 러시아의 재계 엘리트에 대한 국내연구(최우익 1998; 이재유 외 2000)가 진행된 바 있지만 엘리트 개개인에 대한 이력을 토대로 한 분석이라기 보다는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루어졌다. 본 연구가 진행 중이던 2009년 말에는 국내학자들의 공저 『카자흐스탄 정치 엘리트와 권력구조 연구』(이재영 외 2009)가 발행되었는데 동 저서에서 재계 엘리트 인물에 관한 소개가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카자흐스탄 엘리트의 역사를 개관한 최신 논문은 "현대 카자흐스탄 엘리트 제도와 형성과정"(김상철 2009/2010)이 있다.

3. 본 논문에서 설정한 재계 엘리트의 범주

재계 엘리트는 'Business Elite' 의 우리말로써 곧 에너지, 광물, 금융, 건설, 제조업 등 거대업체를 소유하고 있는 민간인을 지칭하며 단순히 공무원 신분인 경제계 관료와 구분한다. 그러나 공기업(국영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인물은 재계 엘리트에 포함시킨다. 다만 카자흐스탄 국가자산

운용사인 '삼룩'-'카지나'의 이사진들은 대부분 국가관료들이지만 재계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는 인물들이므로 이들은 다시 재계 엘리트에 포함시킨다. 사실 카자흐스탄에서는 재계 엘리트와 경제관료 그리고 정치인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바로 주요 인물이 이들 직책을 돌아가면서 담당하기 때문이기도 하다.¹⁾ 그리고 재계 엘리트에서 국가관료로 기용되는 경우도 많아서 관료와 재계 엘리트의 구분이 모호하게 된다. 중소기업 규모의 기업인들은 '엘리트' 범주에서 제외되었고 외국 국적을 지니고 있지만 카자흐스탄을 주 활동무대로 하는 카자흐인들은 재계 엘리트에 포함되었다. 무엇보다도 재계 엘리트의 대표적 인물들은 <포브스>지가 선정하는 세계적 억만장자들일 것이다. 이들 모두는 대통령과 매우 가까운 인물들로 평가되고 있다. 현재 카자흐스탄에서 활동하고 있는 재계 엘리트 규모를 정량적으로 표현할 수는 없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9명의 세계적 억만장자와 10여명의 국영기업체 임원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주요 이력과 대통령과의 관련성 및 정치권력과의 구도를 중심으로 논지를 전개하고자 한다.

II. 카자흐스탄 재계 형성의 객관적 환경

1. 시장경제 제도의 도입과 발전

1991년 12월 16일 구 소련 공화국 중 가장 늦게 독립을 선언한 카자흐스탄은 이듬해부터 시장경제 제도에 입각한 새로운 체제에 적응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²⁾ 또 다른 큰 경제적인 문제는 과거 소비에트 중앙경제 체제 하의 모든 경제적 토대들이 독립국 카자흐스탄에 적합하게 재조정되어야 하는 것이었다. 가령 원유생산과 관련한 1차 에너지 자원문제가 독자적으로 해결되어야만 했고 열악한 재정-금융 문제도 해결되어야만 하였다. 또한 북부 카자흐스탄 지방은 소련 시기의 경제 콤비나트가 러시아 지방과 맞물린 채 유산으로 남아 있어서 경제적 비효율성이 가중되었다.³⁾ 또한 시장경제 자본주의 제도에 능통한 전문가들이 부족했다는 점도 독립적인 국

- 1) 바로 회전문 인사라고 할 수 있다. 카자흐스탄의 고급관료(장,차관)와 지방 주지사, 시장 그리고 국영기업체 사장 등은 그 직책의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자주 순환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한정된 인적 자원과 한편으로는 집권자의 높은 권력집중도를 말해준다.
- 2) 독립 이후 카자흐스탄의 시장경제 발전양상은 다음 글에 정리되고 있다. 사이먼은 카자흐스탄 경제의 특징이자 취약성은 지나친 자원의존형 경제이기 때문에 세계 에너지, 광물자원의 변동에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Simon 2009, 67-92).
- 3) 독립이 되자 카자흐스탄 북부와 동부 지역에서는 소련 시기에 구축되었던 러시아 남부 시베리아 지역과의 행정적, 경제적 네트워크가 폐쇄되었다. 그러나 엘리트 교류의 수준에서는 여전히 양측의 교류가 유지되고 있었으며 이 점에 관해서는 카자흐스탄 중앙정부에서도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었다. 독립 후 탱크화가 도입된 시점에서도 카자흐스탄 북부와 동부 지방에서는 루블화가 여전히 통용되었고 심지어 모스크바를 중앙으로 간주하기까지 하였다. 결과적으로 이후 카자흐스탄 수도이전 발표에 앞서 1997년 5월에 지방행정구역 개편이 이루어졌는데 이에 따라 종전의 19개 주가 14개 주로 재편되었다. 이러한 배경에는 카자흐스탄 북부 지역이 러시아 지역과 맞물려 경제발전 단지(콤비나트)로 조성된 결과 독립국가의 경제정책 실행이 비효율적이었고 그 결과 행정구역 개편이 필요했던 것이다(Cummings 2005, 129).

가경영에서 치명적인 과제로 떠올랐다.

무엇보다도 1990년대 10년간의 초기 체제개혁 시기의 파위는 정치엘리트들이 장악했고 의회구성을 비롯한 정치개혁 문제가 초미의 중대사였다. 이 시기에 경제적 사유화(또는 민영화) 개혁이 단행되었는데 카자흐스탄 엘리트층을 집중 연구하고 있는 샬리 커밍스(Sally Cummings)에 의하면 1991-2001년의 10년을 3단계로 구분해 놓고 있다. 즉 주택소유제를 포함한 소규모 사유화(1991-1992), 사유화 확대조치(농업사유화 포함: 1993-1995), 아케잔 카제겔딘(Акежан Мағжанович Кажегельдин) 총리가 주도한 사안별 사유화 및 외국투자 허용조치(1994-1997) 등이다(Cummings 2005, 123). 이와 같이 90년대를 통하여 사회주의 계획경제 시스템에서 시장경제로 전환하면서 지하자원 개발이 외국자본에 개방되고, 은행이 설립되는 등 획기적인 경제개혁이 단행되었다. 사유화 진행과정에서 알렉산드르 마쉬케비치(Александр Антонович Машкевич), 누르잔 수브한베르딘(Нуржан Салькенович Субханбердин), 무흐타르 아블라조프(Мухтар Кабулович Аблязов), 누르란 발김바예프(Нурлан Утебович Балгимбаев), 라하트 알리에프(Рахат Мухтарович Алиев) 등 재계 엘리트들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는데 이러한 경향은 대략 1998년에 정점을 형성하였다(Cummings 2005, 123).

이후 적극적인 대외개방 세력과 점진적이고 민족주의적 세력 간의 갈등이 발생하였고 카제겔딘 총리를 대체한 발김바예프 총리는 대외개방에 신중한 입장을 표명하였다. 즉 발김바예프 총리는 적극적인 사유화 정책의 시행에서 벗어나 점진적인 개방정책으로 전환시켰고 이러한 기조는 다음 총리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Касымжомарт Кемелевич Токаев) 시기에도 그대로 이어졌다.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총리교체를 통한 방식으로 경제개혁의 속도를 조절하는 정책을 펴면서 대외자본의 강도를 조절하였다. 이 시기에는 카자흐스탄 북서부 지방의 유전지대를 둘러싼 이권문제가 카자흐스탄 정부와 외국거대기업 간에 벌어졌던 최대의 쟁점사안이었고 기타 구리, 알루미늄 등 주요 자원개발에 관한 사업 전체가 경제적 흥정의 대상으로 부각되었다.⁴⁾ 이러한 환경에서 외국자본세력과 카자흐스탄 국내 경제인과의 보이지 않는 거래 또한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카자흐스탄의 경제발전은 1999년부터 시작된 세계적인 유가상승과 함께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었다.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카자흐스탄의 연평균 GDP 성장률은 10.36%를 기록하여 동기간에 6.86%를 기록한 러시아를 상회하였으며, 1인당 GDP도 2000년에 1,229불에서 2004년에는 2,699불로 상승하였다. 그리고 원유 수출은 전체 수출의 절반을 차지하였고 국가재정의 30%를 차지할 정도였으며 2001년에는 국가원유기금이 창설되었다. 은행제도 또한 민간부문에서 정착하기 시작하였고 민간부문은 카자흐스탄 노동시장에서 60%, 전체 경제활동의 85%를 차지하였다. 대통령은 인적자원 개발에도 집중하여 1993년 '볼라삭(Болашақ: 미래)' 제도를 실시하여 많은 젊은 인재들을 미국, 유럽, 러시아, 중국 등지로 국비유학을 시켰다. 이들은 귀국 후 국가 및 민간의 주요 요직을 차지하면서 국가개혁에 기여하게 되었다.⁵⁾

4) 이르나자로프는 일종의 충격요법으로 단행된 카자흐스탄 경제개혁은 투명성이 결여된 정책과 부패로 인하여 새로운 재벌 엘리트층을 형성시켰다고 본다(Irnazarov 2010, 12-17).

5) 볼라삭 제도의 결과 젊은 장, 차관들도 배출되었는데 아자마트 압디모무노프(Азамат Курманбекович

카자흐스탄의 재계 엘리트들은 2000년대 중반이 되면서 더 큰 경제적 세력을 형성하기 시작하였다. 원유와 가스에 관련된 산업으로 국가적 부가 축적되고 외국자본이 증대되면서 이른바 재벌들이 출현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를 반영하는 것이 바로 세계적인 경제저널인 <포브스>지에 2005년부터 소개된 카자흐인들의 억만장자들이다. 인근의 러시아 재벌과 함께 카자흐스탄에도 재벌들이 등장하면서 세계경제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는 사실은 일단 외형적인 모습에서 카자흐스탄 경제력의 한 단면을 구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대표적인 지표가 바로 재벌과 대통령(정치권력)과의 관계인데 이 부분은 논문 후반부에서 별도로 다루기로 한다.

2. 카자흐스탄 재계의 핵심: 에너지 및 광물자원 분야

카자흐스탄 경제의 근간은 원유가스, 광물자원, 재정금융 부문 등이다. 우선 원유가스 부문은 대규모 연합체로 구성되어 있는데 대표적으로 카자흐스탄 국영회사인 '카즈무나이가스'(КазМұнай Газ)'를 들 수 있다. 2002년 2월 20일 대통령령으로 설립된 '카즈무나이가스'는 '카자흐오일(Казахойл)'과 '카르트란스오일(КазТрансОйл)'을 합병하여 카자흐스탄의 종합적인 원유-가스 산업발전을 목표로 출범하였다.⁶⁾ '카즈무나이가스'는 자본금 5,920억 텡게를 가진 카자흐스탄의 거대 국영기업인데 원유 및 가스의 탐사, 시추, 채굴, 가공, 운송 외에도 송유-가스관 부설에 관한 기획, 건설까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원유-가스에 관한 한 카자흐스탄 최대의 국영 비즈니스 회사인 셈이다.

'카즈무나이가스'사는 외국의 원유가스 메이저사와 끊임없는 경쟁을 하고 있다. '카즈무나이가스'사는 카스피 해 근처의 새로운 원유매장지를 지속적으로 탐사하고 나아가 해외 매장지를 확보하려고 하고 기술혁신 등을 모색할 것이다. 그리고 세계적인 원유가스 부문 회사로 성장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전직 사장 우작바이 카라발린(Узақбай Сулей менович Карабалин) 사장은 중국의 위협을 가장 경계하면서 "중국 업체의 카자흐스탄 진출은 아직은 이르다. 모든 면에서 '카즈무나이가스'사가 유리한 위치에 있다. 다만 중국업체는 막대한 규모의 자본을 이끌고 있다. 이 점이 가장 위협적인 현실이다" 라고 지적한 바 있다(Ageev et. al., 2008, 107).

카자흐스탄의 원유-가스 부문에 경쟁적인 외국의 경쟁업체는 중국의 국영석유공사(CNPC), 미국의 석유메이저 셰브론(Shevron) 그리고 러시아의 루코일(ЛУКОЙЛ) 등이 있다. 중국의 적극적인

Абдымомунов: 교육과학부 차관, 인디아나대 줄, 하바드 케네디스쿨 줄, 카라라트 켈림베토프(Кайрат Нематович Келимбетов: 경제예산부 장관, '삼록'-'카지나' 대표이사), 마를렌 이스카코프(Марлен Нурахметович Исаков: 국세부 장관) 등은 그 중의 일부이다(Hill 2005, 3-4).

6) '카즈무나이가스'는 항공운송과 통신 영역에도 관여하고 있다. 자회사로서는 '카자흐오일-엠바(Казахойл-Эмба)', '우젠무나이가스(Узеньмунай газ)' (이상 원유채굴), '카르트란스오일' (원유수송), '카르트란스가스(КазТрансГаз)' (가스수송), 아티라우 원유가공 공장, '카즈모르트란스플로트(Казмортрансфлот)' (해상운송), 아티라우 국제공항, 유라시아-에어 헬리콥터 회사, '카르트란스콤(КазТрансКом)' 통신회사 외. 다수 업체가 있다(Морозов 2005, 156-157).

인 활동은 '카즈무나이가스'사 사장의 지적대로 막대한 자본력에서 움직여지고 있으며 중국의 서부개발 전략과 연관되어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웨브론사는 카스피 해 연안개발과 관련있는 텡기즈웨브로일(Тенгизшеврой л)을 통하여 원유가스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루코일사는 카자흐스탄의 광물자원 개발에 치중하고 있는 인도의 억만장자 락쉬미 미탈(Lakshimi mittal: 2010년 <포브스>지 선정 세계 억만장자 순위 5위, 자산 287억불) 회장 및 CNPC사와 합작하여 원유가스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카즈무나이가스'는 이와 같은 자본과 기술 면에서 강력한 외국 메이저와 경쟁해야 상황에서 마침내 2006년에는 국가자산운용사인 '삼룩'의 조직 속에 편제되었다. 2008년 10월에는 '삼룩'(Самрук)과 지속발전기금 '카지나'(Казына)의 통합으로 설립된 '삼룩-카지나(Самрук-Казына)'의 막대한 자본력에 재편된 '카즈무나이가스'는 대외적 경쟁력을 한층 더 높이면서 국가 자원개발의 국가통제력을 높이는데 일조하고 있다.

광물자원 부문 또한 카자흐스탄에서 주요 국부의 원천이 되고 있다. '카즈친크(Казцинк: 동 카자흐스탄 유색광물 회사)'는 스위스 회사 '카즈아스투르 징크(AG Kazastur Zink 마르크 리치가 설립했던 글렌코르사의 후신)'의 소유이다.⁷⁾ 2006년 10월 당시 '카즈친크'는 "ATF은행(ATФ Банк)사의 주식 134만주(5.8%)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후에 58만주를 더 획득했는데 이후 이 주 목록에 카자흐스탄의 억만장자 블라트 우테무라토프(Булат Джамитович Утемуратов)가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카라간다 금속공업 콤비나트(그리고 에너지와 석탄채굴을 포함한 관련기업)는 인도의 억만장자 락쉬미 미탈의 것이다. 그리고 락쉬미 미탈은 원유 부문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다. 구리채굴 및 가공회사 '카자흐미스(Казахмыс)'⁸⁾는 블라디미르 김(Владимир Сергеевич Ким)의 통제를 받는다. 2006년 3월 블라디미르 김은 'ENRC Kazakhstan Holding'사 주식 25%를 매입했다고 발표하였으며 포브스 순위 발표 이후 이미 원유와 가스생산지 확보를 통한 '카자흐미스'사의 사업확대 의도가 알려지게 되었다. 그리고 ENRC(Eurasian Natural Resources Corporation)는 2006년에 등록되었는데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회사는 '카자흐크롬', '카자흐스탄 알루미늄', '카자흐스탄 알루미늄공장', '자이렘스크', '소콜로프-사르바이스크 광물생산연합', '유라시아 에너지 코퍼레이션', 'ENRC 로기스틱스', 'ENRC 마케팅 & 세일' 사 등이 있다. 게다가 ENRC에는 세계적 억만장자인 마쉬케비치, 쇼디예프, 이브라기모프의 주식(각각 약 60-70%)뿐만 아니라 국가주식도 포함되어 있다. 회사보도에 의하면 ENRC는 카자흐스탄 GDP의 5%를 차지하고 있고 철합금 생산 3위, 철광석 채굴 및 가공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7) '카즈친크' 회사는 카자흐스탄 아연생산의 58%를 차지하고 전체 수입의 절반을 차지한다. 나머지 연, 은, 금(카자흐 내 50% 생산), 구리(카자흐 내 16%) 등이다. 금 생산은 카자흐 내 1위를 차지하지만 '카즈친크'사에게는 부수적인 생산물이다. 아연의 상당량은 수출된다. 생산량의 70%는 수출되고 30%는 내수용이다. 카자흐스탄은 제조업이 발전하지 않아서 이들 생산품은 단순히 요구되지 않는다. 회사에서 생산하는 연 약30만톤의 아연 중 40%가 중국으로 수출되고 있지만 중국에는 장기구매를 할 만큼 거대기업이 없다(Areev et. al. 2008, 273).

8) 우리에게 '카작무스'라고 알려져 있지만 이 글에서는 '카자흐미스'라고 표기한다. 카라간다 구리광산 회사 정상화를 성공시킨 삼성의 초기 현지 성공적인 비즈니스 사례에 속한다. 이에 관한 걸로 드러난 스토리는 이미 국내 언론에도 많이 소개되어 있다.

세계 칼륨 생산의 2/5, 인조 산화알루미늄 및 망간 생산의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동 그룹은 세계 크롬 보유 4위이며 카자흐스탄 에너지의 주요 공급업체이다. 카자흐스탄 회사 이외에도 독일 구리회사 MKM도 그룹에 참여하고 있다.⁹⁾

한 마디로 ENRC사는 블라디미르 김의 '카자흐미스'와 함께 카자흐스탄의 광물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회사임을 알 수 있으며 세계적인 억만장자인 락쉬미 미탈 또한 원유와 광물로 이득을 올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카자흐스탄 시장에서는 대개 거대한 사업체들의 입지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인데 여기에는 국가, 락쉬미 미탈, 마쉬케비치, 블라디미르 김 및 기타 행위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주목해야 할 사실은 그러한 광물산업 과정에 미치는 국가의 영향력은 분명히 축소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 결과 해외주식 시장에 상장된 IPO 인정 회사들의 활동이 가능해지고 있는데 이것은 한편으로는 중국적으로 90년대의 사유화 및 민영화 정책의 결과로 귀착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실상 국가관리를 받는 기업체들이 출현한다는 것을 말한다. 현재 카자흐스탄에서 활동하고 있는 서구 해외투자자들의 상업적 이익(우선 연금재단)은 EU와 NATO의 힘(카자흐스탄 내 국내정치적 변동시 대비)에 의하여 강력하게 보호되고 있다.¹⁰⁾

3. 재계의 금융기관 구도 변화

카자흐스탄에서 시장경제 제도가 발전하면서 카자흐스탄의 금융 부문 또한 재계의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독립 직후 카자흐스탄에서는 200개에 가까운 소형 은행들이 많이 설립되었다. 한 보고서에 의하면 1992년에 155개이던 은행이 1년 만에 223개로 확대되었는데 지점까지 포함한다면 1992년 877개에서 1993년에는 1,023개였다.¹¹⁾ 이러한 은행들은 1998년에 71개, 그리고 2001년에는 48개로 정리되었고 그 중 11개의 은행만이 국제기준을 만족시키는 은행으로 인정되었다.¹²⁾

주요 은행으로서 우선 규모가 가장 크고 CIS 지역망을 갖추고 있던 투란알렘은행(Bank of Turan Alem: 이하 BTA 은행)은 2009년 2월에 국영화 구조조정 될 때까지 카자흐스탄의 최대 민간은행이었다.¹³⁾ BTA 은행은 주식수와 자본금 규모에서 카자흐스탄에서 최대이며 CIS에서 5위권 내에 속한다. 2008년 1월 1일 기준 주식금액은 255억불, 자본금은 38억불 이상이었다. BTA 은행은 법인과 개인사업, 무역금융, 주식시장, 신용, 중소기업 발전, 리스산업, 부동산 대출, 연금 기금 등 많은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최고의 금융기관이며 카자흐스탄 전역에 걸쳐 22개 지사와 290개 출장소를 보유하고 있는 거대한 네트워크 기관이다. 160개의 은행자동기기가 설치되어

9) <http://www.nomad.su/?a=2-200703120012> (2010.1.10 검색)

10) <http://www.nomad.su/?a=2-200703120012> (2010.1.10 검색)

11) <http://ozs.mofcom.gov.cn/table/kaza/banking.pdf> (2010.1.15 검색)

12) <http://ozs.mofcom.gov.cn/table/kaza/banking.pdf> (2010.1.15 검색);

<http://www.nomad.su/?a=4-200612120615> (2010.1.10 검색)

13) 투란알렘은행의 역사는 1925년 소련 시기로 거슬러 가며 1991년 카자흐스탄의 독립 이후 투란은행과 알렘은행이 2003년에 합병하면서 투란알렘은행이 되었다. 2000년 중반을 통하여 카자흐스탄 뿐만 아니라 CIS권 그리고 전 유럽권에서도 자산, 고객, 지점망 면에서 상위 그룹에 속한 카자흐스탄을 대표하는 민간은행이었다.

현금입금을 취급하고 있는데 120만명의 개인과 95,600명의 법인이 이를 이용하고 있다. BTA 은행은 2006년과 2007년에 CIS 경제전문가들이 뽑은 올해의 CIS 은행으로 '이토기(Itogi)'지에 선정되었으며 국제저널 '유로머니(Euromoney)'에서 중앙아시아 최고의 은행으로 간주된 바 있다(Areev 2008, 237). 그러나 BTA 은행은 2008년의 카자흐스탄 금융위기의 여파로 결정적인 위기를 맞이하면서 해당 경영진 또한 몰락하였다.

이 은행과 견줄만한 자산을 보유한 '카즈코메르츠뱅크(Казкоммерцбанк 카즈흐상업은행: 이하 KKB 은행)'은 1991년에 설립되어 2007년에는 주식총액 249억불로 성장하여 카자흐스탄 최대 은행의 대열에 편성함과 동시에 국제실사를 받은 카자흐스탄 최초의 은행이다. KKB 은행은 국제채권시장에 상장된 CIS최초의 은행이며, 1998년에는 유럽채권시장, 2006년에는 런던 주식시장에 상장되었다. 현재 KKB 은행은 카자흐스탄 실물경제 부문의 투자액에서 최고를 기록하고 있는데 규모는 전체 기업신용 시장에서 1/3을 차지하고 있다. KKB 은행은 국내투자액에서도 최고이며 기업예금시장 비율이 20%, 개인예금시장에서 21%를 차지하고 있다. KKB 은행은 2007년에 중소기업에 위한 기업혁신을 단행하였는데 새로운 브랜드 'KAZKOM'으로 전국 지점망을 확충한 이래 1년 만에 80개를 개설하였고 2008년 기준 200개의 지점을 보유하고 있다. 이 밖에 자회사로 키르기스스탄에 은행(카즈코메르츠은행-키르기스스탄), 러시아 모스크바에 모스크메르츠은행, 2007년에는 타지키스탄에 자회사 카즈코메르츠은행-타지키스탄을 개설하였다.¹⁴⁾

인민은행 혹은 국민은행의 뜻인 할릭 은행은 정부금융의 대리인 역할을 하면서 국내에서 유일하게 농업 부문에 대한 금융지원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담당하고 농촌 지역을 포함한 전국에 걸친 지점망을 가지고 있다. 2006년 10월 당시 할릭 은행의 대주주는 알마티의 대기업 '알렉스(АЛМӘКС)'인데 전체 주식의 74.17%를 보유하고 있었다.¹⁵⁾ 할릭 은행은 2008년의 금융위기를 잘 견뎌내었으며 2010년 현재 KKB 은행과 함께 민간은행으로서 양대 산맥을 형성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ATF(АТФ) 은행은 1995년에 설립된 이후 10년 이상이나 획기적인 성장을 이루고 직원을 2500명 이상 보유하고 있다. ATF 은행은 강력한 금융그룹으로 발전하며 리스, 보험, 연금보장 등 종합금융회사로서 2008년 기준 카자흐스탄 내 주식총액 5위권 이내이며, CIS 내 30위권을 기록하였다. 카자흐스탄 전국에 걸쳐 20개의 지점망 보유하고 있는 ATF 은행은 해외에서도 활동하여 2005년에 모스크바에 금융연구소를 개설하고 키르기스스탄에 자은행 'ATF 은행-키르기스스탄', 러시아의 옴스크에 '시비리' 은행을 운영하고 있다. ATF 은행은 카자흐스탄 중소기업 지원 은행으로도 유명하다(Areev 2008, 237).

센터크레딧 은행(Банк ЦентрКредит ВСС: Bank of Center Credit 이하 ВСС 은행)은

14) 카즈코메르츠은행은 카자흐스탄에서 유일하게 신용카드(비자, 마스터 및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를 발급하고 있다. 2008년 2월 1일부로 913,000장 이상의 카드가 발급되었고 자동지급기는 780곳 그 중 10%는 현금예금이 가능하다. 이 밖에 229개의 인터넷-키오스크 및 6,800개의 POS-터미널을 기업체에 설치하고 있다(Areev 2008, 223);

<http://ru.kkb.kz/retail/page/Homebank> (2010. 1. 15 검색) 참조.

15) '알렉스'사는 콜리바예프 부부의 소유이기 때문에 사실상 할릭은행에 대한 그들의 영향력은 크다고 할 수 있다.

1988년에 개설되어 2007년에 면허가 갱신되었으며 2009년 말 기준 카자흐스탄 국내에 20개의 지점을 가지고 있다. 2008년 8월 27일에 한국의 국민은행이 BCC 은행의 지분 23%를 매입하였는데 2009년 12월 31일 부로 국민은행의 지분은 30.52%로 확대되었다.¹⁶⁾ 다음 표는 센터크레딧 은행의 지분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표1) 센터크레딧 은행의 지분 현황

소유자	2007.12.31(%)	2008.12.31(%)	2009.12.31(%)
바이세이토프 (Бахытбек Рымбекович Бай сеитов)	51.06	36.39	36.39
국민은행	-	30.55	30.52
블라디슬라브 리 (Владислав Сединович Ли)	7.73	4.83	4.82
기타(소액주주)	41.21	28.23	28.27
합계	100	100	100

출처: http://eng.centercredit.kz/temp/fdbcc_9m2009.pdf (동 자료는 2010.3.1 이사회 승인)

표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BCC 은행의 최대 주주는 현재까지 카자흐스탄 금융재벌인 바이세이토프로서 2007년 12월 말 51.06%에서 2009년 12월 말 기준 36.39%를 차지하고 있다. 국민은행의 지분은 2010년 3월 1일자로 승인된 이사회에 의하면 30.52%(2009년 12월 말 기준)로서 2위의 대주주로 나타나 있다.¹⁷⁾ BCC 은행의 주주구성은 국민은행의 추가 주식매입 계획으로 2011년이 되면 1, 2위 자리가 바뀔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때 국민은행의 지분은 40.1%, 바에세이토프의 지분은 30% 이하로 될 것이다. BCC 은행은 2008-9년의 카자흐스탄 금융위기와 구조조정 과정에서 국영화조치의 피해를 받지 않았지만 60% 이상 하락한 주가와 높은 연체율로 인하여 재정건전도가 심각한 상태에 있다. BCC 은행의 최대 주주가 국민은행이 된다면 카자흐스탄 은행이 외국계 은행으로 넘어가는 선례가 될 것이다. 그러나 국민은행도 당초 목표치인 지분 50.1%에서 10%를 낮춘 것으로 수정한 것을 보면 BCC 은행이 완전한 외국계 은행으로 전환되는 것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¹⁸⁾

알리안스 은행(Альянс Банк)은 파블로다르의 이르티쉬 은행의 후신으로서 1999년 6월에 2개의 지방은행인 세미팔라틴스크 시티은행과 이르티쉬 기업은행을 합병하면서 출범하였다. 동카자

16) http://eng.centercredit.kz/temp/fdbcc_9m2009.pdf (2010.1.10 검색) 참조.

17) 2008년에 KB 지주금융은 BCC 은행의 지분 30.6% 확보에 172억 텡게(1억 1,600만불)를 지급한 바 있다. <http://eng.centercredit.kz/news/2501101.html> (2010.1.10 검색)

18) BCC 은행에 대한 국민은행의 지분 확보는 현재진행형이다. 국민은행의 지분이 확대될수록 카자흐스탄 국내은행은 외국계로 넘어가는 형국이 될 것이다. 이러한 사정은 은행국유화 조치를 취하고 있는 카자흐스탄 정부의 금융정책과 대치된다고 볼 수 있다.

호스탄과 파블로다르의 지방기업을 위해 만들어진 알리안스 은행은 2001년이 되면서 국제적 수준을 충족하는 은행으로 진일보하였다.¹⁹⁾ 알리안스 은행은 2007년에 권위있는 은행저널에서 아시아의 상위 200대 은행에 랭크되었으며 2008년에는 카자흐스탄 내 최고의 은행으로 평가되었으나²⁰⁾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인한 여파를 피해가지는 못하여 결국 2009년에 공적 자금이 투입되어 국유화되었다. 알리안스 은행의 지분은 2010년 3월 현재 '삼룩-카지나'가 모두 가지고 있는 상태이다.

지금까지 정리한 카자흐스탄의 주요 6대 은행은 국가경제의 근간인 금융 부문을 주도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시장경제의 발전과 함께 국가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러나 2008~2009년에 걸친 카자흐스탄의 금융위기로 인하여 최대의 은행이던 BTA 은행과 유망은행이던 알리안스 은행이 국유화되고 BCC 은행이 외국계(한국의 국민은행) 은행으로 거의 매각되고 있는 구조 조정의 난관에 직면하고 있다.

표2) 카자흐스탄의 6대 은행

은행명	자산총액 (2009.6)(억불)	특징
투란알렘은행(BTA)	170	카자흐스탄 최대은행, 국유화(2009)
카즈코메르츠뱅크(KKB)	169	2010 현재 최대 민간은행, KAZKOM으로 신경영
할릭은행	131	카자흐 토착자본 은행, 실질적 쿨리바예프 부부의 소유
ATF 은행	71	비교적 양호한 재정건선성 유지
BCC	64	외국계 은행으로 전환 중
알리안스 은행	39	카자흐스탄 지방은행에서 출범했으나 2009년에 국유화 조치

표2)에서 본 바와 같이 카자흐스탄의 금융위기로 인하여 카자흐스탄의 6대 은행 중 BTA 은행과 알리안스 은행이 국가소유로, 그리고 BCC 은행 또한 외국계 은행으로 사실상 전환되고 있음을 볼 때 카자흐인 민간 주도의 금융 비즈니스의 판도변화가 크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에서 열거된 은행 외에도 카자흐스탄에는 다소 규모가 작은 은행들이 더 있는데 그 중에서도 누르뱅크(은행), 테미르 은행, 카스피 은행, 체스나뱅크, 카자흐외환은행, 카자흐산업은행 등이 있다. 이들 은행들도 금융위기의 구조조정에 예외가 될 수 없었으며 테미르 은행과 카스피 은행 등은 '삼룩-카지나'에 절반 이상의 지분을 허용하면서 사실상 국유화 되었다. 다만 누르뱅크는 대통령의 장녀 다리가 나자르바예바(Дарига Назарбаева)의 소유권이 여전히 인정되고 있

19) <http://albinvestorrelations.com/about/aboutalb/history> (2010. 1. 10 검색)

20) <http://albinvestorrelations.com/about/aboutalb> (2010. 1. 10 검색) 알리안스 은행은 2008년 6월말 당시 자산총액 1조 690억 텡게(88억 5,400만불), 상반기 순이익만 102억 텡게(8,470만불)를 기록한 바 있다.

는데 2007년 이전에는 한때 대통령의 만사위였던 라하트 알리에프의 지분도 있었던 은행이다.

이와 같이 금융 부문은 재계 엘리트 형성의 기반이 되고 있으며 원유-오일 및 광물자원 부문과 같이 카자흐스탄 경제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카자흐스탄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주요 50대 재계 업체에 은행을 포함한 금융기관의 서열이 상위에 속해 있는 것을 보면 그 비중을 알 수 있다.²¹⁾

III. 재계 엘리트의 실체 - 재벌(산업-금융가)

1. 카자흐스탄의 세계적인 억만장자 집단

독립 이후 카자흐스탄의 급속한 경제성장의 결과 막대한 부를 축적한 재벌이 등장하게 되었다. 매년 3월에 자산 10억 달러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세계적인 부호를 공개 발표하고 있는 <포브지>에 따르면 2005년 3월 <포브스> 최초로 카자흐스탄 재벌 3명이 억만장자의 리스트에 포함되었다. 알렉산드르 마쉬케비치, 파토흐 쇼디예프(Патох Шодиев), 알리잔 이브라기모프(Али Джан Ибрагимов) 등 3명의 재벌은 자산이 각각 10억 달러씩이며 순위는 세계 620위였다. 이어서 2006년에는 <카자흐미스> 블라디미르 김이 자산 27억불 (세계 258위)로 추가 선정되었는데 그는 카자흐스탄 국내에서 최고의 갑부로 기록되었다. 그리고 앞선 3명은 각각 20억불씩 증가되었고 순위는 세계 382위로 랭크되었다. 그런데 알렉산드르 마쉬케비치는 이스라엘 국적을, 파토흐 쇼디예프는 벨기에 국적을 가지고 있는 카자흐인이며 이들은 카자흐스탄의 외국자본 투자와 함께 부를 축적하였는데 대통령과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다.

2007년 <포브스> 지는 억만장자에 3명의 카자흐스탄인과 1명의 카자흐 동포를 추가로 선정하였다. 최고 부자는 전해에 이어 블라디미르 김(142위, 55억불)이었으며, 2위는 티무르 쿨리바예프(Тимур Аскарлович Кулибаев)와 디나라 쿨리바예바(Динара Нурсултановна Кулибаева, 458위, 42억불, 각각 21억불씩) 부부였고, 반면에 쇼디예프, 마쉬케비치, 이브라기모프 3명은 자산 손실로 인하여 538위(각각 19억불)로 랭크되었다. 7위는 '카즈코메르츠뱅크' 은행이사회 의장 누르잔 수부한베르딘(Нуржан Салькенович Субханбердин, 664위, 15억불)이었다. 이후 2010년 3월까지 <포브스> 지에 공표된 카자흐인 억만장자 리스트는 다음 표와 같다.

21) 한국수출입은행에서 발간한 해외경제-투자정보에 의하면 설문조사를 통해 본 상위 50대 카자흐스탄 기업(2008년 1월 기준)에 보험회사, 투자사, BTA 은행이 각각 3~5위를 기록하였고 그 외 ATF 은행(8위), (KKB은행(9위), 할릭은행(10위), BCC 은행(12위) 등이 상위그룹으로 포진되어 있었다. 이것으로 보아 카자흐스탄에서 금융위기가 본격화되기 전까지는 금융기관이 카자흐스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음을 알 수 있다(고안나 2009, 1-7).

표3) <포브스>지가 선정한 카자흐스탄 억만장자

이름	선정년도(2005~2010)						비교(자산규모, 연도, 순위 등)
	05	06	07	08	09	10	
알렉산드르 마쉬케비치	0	0	0	0	x	0	1954년 키르기지야 출생 이스라엘 국적 카자흐인 2008년 33억불 2010년 33억불 (세계 287위)
파토흐 쇼디예프	0	0	0	0	0	0	1953년 우즈벡(취직) 출생 벨기에 국적 카자흐인 2009년 12억불 (세계 601위) 2010년 33억불 (세계 287위)
알리잔 이브라기모프	0	0	0	0	0	0	1953년, 키르기지야 출생 2009년 12억불 (세계 601위) 2010년 33억불 (세계 287위)
블라디미르 김	x	0	0	0	x	0	1960년 남카자흐스탄주 출생 2006년 27억불 (카자흐 1위) 2007년 55억불 (카자흐 1위) 2008년 47억불 (카자흐 1위) 2010년 37억불 (세계 247위, 카 자흐 1위)
누르잔 수브한베르딘	x	x	0	0	x	0	1964년 알마아타 출생 2008년 18억불 2010년 10억불 (세계 880위)
티무르 쿨리바예프	x	x	0	0	x	0	1966년 알마아타 출생 2008년 27억불 (부부합산) 2010년 11억불 (세계 880위)
디나라 쿨리바예바	x	x	0	0	x	0	1967년 알마아타 출생 2008년 27억불 (부부합산) 2010년 11억불 (세계 880위)
블라트 우테무라토프	x	x	x	0	x	x	1957년생 구리에프 출생 2008년 10억불
바히트벡 바이세이토프	x	x	x	x	0	x	1958년 알마아타 출생 2009년 10억불

출처: <http://www.nomad.su/?a=0-200903120000>http://www.forbes.com/lists/2009/10/billionaires-2009-richest-people_The-Worlds-Billionaires_Rank_29.htmlhttp://www.forbes.com/lists/2010/10/billionaires-2010_The-Worlds-Billionaires_Rank.html

도표3)에서 보면 2009년 3월 기준 억만장자 리스트에 블라디미르 김을 비롯한 기존의 억만장자들이 거의 빠져 있는데 이는 2008년 카자흐스탄의 경제위기와 관련한 자산손실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러나 새로운 억만장자가 한 사람 등록되기도 했는데 그는 카자흐스탄 금융재벌인 바히트벡 바이세이토프(Бахытбек Рымбекович Бай сеитов)로서 2009년 3월 기준 10억불의 자산가로 올랐다. 가장 최근인 2010년 3월에 발표된 억만장자는 7명이며 카자흐스탄 내 최고의 갑부는 자산이 37억불, 세계 순위 247위로 평가된 블라디미르 김이다.

지금까지 고찰한 카자흐스탄의 세계적인 부호는 모두 9명이며 그 중 외국 국적을 지니고 있는 사람은 2명, 나머지 7명은 모두 카자흐 국적을 가지고 있다. 블라디미르 김은 2006년에 처음 <포브스> 지의 억만장자 리스트에 오른 후 2009년을 제외하고 2010년까지 줄곧 기록되고 있는 최고의 카자흐인 부자라고 볼 수 있다. 블라디미르 김은 2007년의 자산평가가 55억불로서 최고를 기록하였으나 2009년에는 10억불에도 미치지 못해 억만장자 리스트에서 제외되었다. 블라디미르 김은 2010년에는 마침내 37억불로서 다시 카자흐스탄 내 최고의 자산가로 평가되었다. 블라디미르 김의 주력 업체는 바로 카라간다 지역의 구리업체 <카자흐미스>이며, 그 외 <제즈카즈간베스트메트>, <동카자흐스탄 구리-화학 공장> 등이다. 블라디미르 김이 이렇게 최고의 자산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바로 대통령의 최측근 그룹(inner circle)에 속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바르바라 주니스바이(Barbara Junisbai)의 주장이다(Junisbai 2010, 242-244). 왜냐하면 카자흐스탄에서 거대기업을 운영하려면 최고 정치권력층의 비호가 있지 않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바르바라 주니스바이는 블라디미르 김을 비롯하여 티무르 쿨리바예프 부부, 마쉬케비치, 쇼디예프, 이브라기모프, 우테무라토프(Булат Джамитович Утемуратов) 등 7명을 대통령의 'inner circle' 멤버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는 결국 카자흐인 억만장자의 거의 대부분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명목상의 자산평가로 볼 때 카자흐 최고의 부호인 블라디미르 김이 민족별로 볼 때 카자흐인이 아니라 고려인이라는 점에서 카자흐스탄 내에서 높아진 고려인의 위상을 실감할 수 있다. 1982년 알마아타 건축공대를 졸업한 블라디미르 김은 미국의 케네디 경영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수여한 서방식 경영수업을 받은 전문가로 성장하였다. 1992년에는 '카자흐스탄-삼성'의 대표이사로 활동하였고 1995년에 '제즈카즈간유색광물회사' 전문을 맡은 후 1997년에 동 회사의 사장으로 승진하였다. 1997년에는 구리회사 '카자흐미스'의 사장이 되었으며 2000년에 주식회사 '카자흐미스'의 이사회 의장이자 사장으로 맡은 후 지금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다(Асылбеков 2008, 276). 이러한 블라디미르 김의 성공적인 기업운영으로 인하여 '카자흐미스(카작무스)'는 카자흐스탄의 대표적인 기업회사로 부각되었는데 사실은 나자르바예프의 절대적인 비호가 없었으면 이러한 일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²²⁾

카자흐인으로서 주목받는 부호가 바로 쿨리바예프 부부라 하겠다. 대통령의 차녀 디나라 쿨리바예바(나자르바예바)와 그녀의 남편 즉 대통령의 둘째 사위인 티무르 쿨리바예프는 부부 합산의 재산이 2010년 3월 기준 22억불로 카자흐스탄 내 5위를 기록하고 있다. 2007년 이들 부부의

22) 라하트 알리에프에 의하면 블라디미르 김의 자산은 명목적인 것일 뿐이고 실제 소유주는 따로 있다고 하는데 아마 그 주인은 카자흐스탄의 최고권력자일 것이다. 대통령 전용기 구입사업에 블라디미르 김이 나섰다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민간 사업가가 할 일이라고 보기에 힘들기 때문이다.

자산은 40억불로 평가된 바 있는데 주로 원유와 금융기관이 이들의 주 업종이다. 티무르는 2007년까지 국영원유사인 '카즈무나이가스'의 부사장을 역임하였고 원유생산, 가공, 수송 관련 산업체를 경영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쿨리바예프 부부는 생수, 언론기관, 지방 항공회사까지 운영하고 있는 거대 재벌가이며 중요한 점은 대통령 일가라는 점이다.

표4) 카자흐스탄 억만장자들이 운영하고 있는 주요 업체 현황

재벌	업체
블라디미르 김 [광물자원]	<카자흐미스 구리회사>, <제즈카즈간베스트메트>, <동카자흐스탄 구리-화학 공장>, 신문 <브레마>
쿨리바예프 부부 [원유가스, 금융]	할릭은행장, <카즈코메르츠 은행> 최대 주주 <'카즈무나이가스'> 부회장(2007년까지), <카르트란즈오일>, <카르트란즈가스>, <망기스타우-무나이가스> 운영 쉽켄트 및 파블로다르에 원유정제공장, 마쿠스 주류 및 생수공장, NTV-Kazakhstan 방송사, Izvestiya-Kazakhstan 신문사, Kontinent 저널, <콤소몰스카야 프라브다>지 및 <이즈베스티야> 지 카자흐어판, 지방항공사 등.
알렉산드르 마쉬케비치, 파토흐 쇼디예프, 알리잔 이브라기모프 [광물자원]	<유라시아 천연자원 회사(ENRC)>, <알루미늄 카자흐스탄>, <카자흐 광물자원 회사>, <유라시아 은행>, 신문 <엑스프레스-K>, Irbis TV 방송사
블라트 우테무라토프 [금융]	<투란알렘은행>, 할릭은행 주주, TV 방송사 <채널 31> 전 주주, 신문 <메가폴리스>
누르잔 수브한베르딘 [금융]	<카즈코메르츠 은행> 최대 주주, <카즈코메르츠 은행> 자회사 보유
바히트벡 바이세이토프 [금융]	<센터크레딧 은행> 공동 주주, 아타메켄(Atameken) 금융투자그룹 회장, 센터인베스트 투자회사 이사회 의장

출처: Junisbai 2010, 244-246 에서 정리.

쿨리바예프 부부 외에 위의 표4)에도 나타나 있듯이 카자흐스탄 억만장자 중에는 알렉산드르 마쉬케비치, 파토흐 쇼디예프, 알리잔 이브라기모프 등²³⁾이 있는데 이들 3인은 대통령과 개인적으로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알루미늄을 비롯한 광물자원으로 부를 축적하였다. 그

23) 이들 3인방은 카자흐스탄에서 금속 및 광물자원을 석권하였으며 유라시아 천연자원 회사는 런던 주식 시장에 상장되어 있다.

http://www.forbes.com/lists/2009/10/billionaires-2009-richest-people_Alijan-Ibragimov_7IZC.html
(2010.1.12 검색)

리고 이들과 관계있는 유라시아 은행(Евразийский банк)은 유라시아 금융-산업 회사(소유주: 마쉬케비치, 이브라기모프, 쇼디예프 각각 33.3%씩) 소유이다.²⁴⁾ 이들은 또한 자체 신문-방송사 (<엑스프레스-K>와 <Irbis TV> 방송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카자흐스탄 억만장자 및 재벌의 특징이 바로 경제적 업체 외에 언론기관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언론기관을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으면 자신들이 운영하고 있는 업체를 지속적으로 선전할 수 있는 이점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취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누르잔 수브한베르딘은 금융계의 억만장자로서 카자흐스탄 내 최대은행 중 하나인 <카즈코메르츠 은행>을 장악하고 있다. 수브한베르딘은 2007년과 2008년 그리고 2010년에 <포브스>에 등재되었으며 2010년 자산평가는 10억불(세계 880위)이었다. 카자흐스탄 억만장자 중에는 2009년에 한번 <포브스>에 오른 바히트벡 바이세이토프가 있는데 그는 <센터크레디트 은행(BCC 은행)>²⁵⁾의 공동 주주이며 아타메켄(Atameken) 금융투자그룹을 운용하고 있다. 대통령행정실 총무 수석을 맡고 있는 블라트 우테무라토프 또한 금융재벌로서 ATF 은행 주식 65.3%를 소유하고 있다. 그는 <포브스>지 억만장자 리스트에 2008년 단 한 차례 10억불 자산가로 등재된 바 있다.

전체적으로 본다면 카자흐스탄의 억만장자는 원유나 광물자원을 토대로 한 사업가와 은행을 토대로 한 금융자본가에서 출현하고 있고 어떤 경우에는 두 부문을 모두 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들은 자체 언론기관도 가지고 있는 것 또한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분석은 단지 명목상의 재산소유주에 입각해서 내려진 것일 뿐이라는 점이다.

2. 관료적 재계엘리트 대표 집단: 국가복지펀드 "삼룩-카지나"

(Фонд национального благосостояния "Самрук-Қазына") 임원

국가복지펀드 "삼룩-카지나"는 2008년 10월 13일 대통령령 제669호 "국가경제의 경쟁성 및 지속강화성에 관한 조치(О некоторых мерах по конкурентоспособности и устойчивости национальной экономики)"와 10월 17일 행정부령 제962호 "대통령령 제669호 이행조치(О мерах по реализации Указа Президента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от 13 октября 2008 года №. 669)"에 근거하여 기존의 국가자산운용사 "삼룩"과 지속발전기금 "카지나"의 합병으로 만들어진 거대 국가투자펀드사이다.²⁶⁾ "삼룩-카지나"는 2008년 카자흐스탄의 경제위기 상황을 효과적으로 타개하기 위하여 대통령의 직접적인 개입으로 설립되었다. 국가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가경제의 지속발전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삼룩-카지나"가 우선성을 두고 있는

24) <http://www.nomad.su/?a=2-200703120012> (2010.1.10 검색)

25) BCC 은행과 한국의 국민은행과의 관계는 앞 장에서 이미 설명한 바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내용을 참조.

http://www.forbes.com/lists/2009/10/billionaires-2009-richest-people_Bakhytbek-Baiseitov_O28L.html (2010.1.12 검색)

26) http://www.samruk-kazyna.kz/page.php?page_id=6&lang=1&parent_id=5 (2010.3.19 검색)

부문은 원유 및 가스, 전력에너지, 철강, 석유화학, 경제적 인프라 구축분야 등이다. 곧 막대한 투자자금을 정부에서 중앙 관리하고 주요 산업부문에 대한 정부의 직접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이 '삼륙-카지나'의 주 목표이다.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이를 위해 '삼륙-카지나'의 이사회 임원을 개편하면서 "삼륙"의 대표이사로 있던 영국인 리처드 에반스 경(Sir Richard Evans)을 사외이사 임원으로 조정하고 동시에 "카지나" 이사들을 그대로 기용하면서 이사회 의장에는 총리인 카림 마시모프를 임명하였다. 티무르 쿨리바예프 인물로 알려진 카림 마시모프 총리는 BTA 은행의 전신인 투란 은행의 민영화 구조조정을 주도했던 인물이며(Murphy 2006, 546), 2009년에는 BTA 은행의 국유화 조치를 단행하였다.

이사회 임원구성은 총리 외에 현직 장관이 모두 5명(산업통상부, 경제 및 예산기획부, 재무부, 에너지 및 광물자원부, 경제발전 및 무역부), 독립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외이사 3명, 그리고 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대표이사 1명 등 모두 10명이다(표 이사회 임원 참조). 국가편드의 성격상 경제관련 각료들이 포함되는 것이 특징적이며 이사회 의장이 총리라는 점에서 범정부적 최고 권위를 가진 기구임을 알 수 있다. 이들 임원들은 미국 유학의 경험이 있고 국제문제에도 높은 지식을 갖춘 전문가들이 있다.

'삼륙-카지나' 이사회 임원들의 기본 요건은 모두 경제에 관한 전문성이 높다는 것이며 장관이나 차관 등 경제관련 부서책임자이거나 국가투자편드의 책임자로서 충분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대학에서 전공이 비경제학 쪽일 경우는 대통령 직속의 전문아카데미에서 교육을 받았으며 졸업 이후 투자나 경제정책 방면에서 장기간의 실무경험을 쌓아야 핵심포스트를 차지할 수 있다는 점도 이사회 임원명단 주요 경력에서 발견될 수 있는 점이다. 사회이사를 포함한 모든 임원들이 대통령 보좌관 이상의 경험을 가지고 있어서 대통령과 잘 아는 사람들이라는 점 또한 '삼륙-카지나' 임원 선출의 필수조건임을 알 수 있다.

표5) 이사회 임원

성명	주요 학력	주요 경력
카림 마시모프	1965년생 북경외국어 및 문화대학 졸, 우한법대졸, 카자흐 경영아카데미졸	노동부의 경제관료로 입문, 국가대외경제 관계부 근무(우름치), 카자흐스탄 홍콩무 역사무소 소장, 교통통신부 장관, 부총리 겸 대통령 보좌관, 총리(2007.1~), '삼륙- 카지나' 이사회 의장(2008.10. 대통령령)
바히트 스타타노프 Бахыт Турлыханович Султанов	1971년생 (알마티) 카자흐국립공대 졸, 카자 흐국립경영아카데미 졸	재무부에서 입문(1994), 경제 및 예산기 획부 차관(2004~2006), 카자흐국가통계청 장(2006~2007), 재무부 차관(2007), 경제 및 예산기획부 장관(2007~), 지속발전기 금 '카지나' 이사회 임원(2007~2008), '삼 륙-카지나' 이사회 임원(2008.10)

<p>아셋 이세케세프 Асет Орентаевич Исекешев</p>	<p>1971년생 (카라간다) 알파라비 카자흐국립대 법학부 졸, 대통령 직속 공공정책대학원 수료</p>	<p>경제 및 예산기획부 자문의원, 산업통상 부 차관(2003~2006), 지속발전기금 '카지 나' 부회장(2006~2007), 대통령 보좌관 (2008~2009), <u>산업통상부 장관</u>(2009.5~), 한국, 독일, 영국과의 경제투자 프로그램 수행, 국가장기 발전계획에 관여</p>
<p>좌나르 아이트좌노바 Жанар Сей дахметовн а Ай тжанова</p>	<p>1965년생 카자흐국립대 졸, 하바 드대 존 F. 케네디 스쿨 수료. 역사, 정치학 전공</p>	<p>카자흐스탄 내 UN기구에서 활동, 산업무 역부 차관(2003), WTO 교섭 카자흐대표 단장, <u>경제발전 및 무역부 장관</u>(2010.3), ' 삼록-카지나' 이사(2010.3)</p>
<p>볼라트 좌미쉐프 Болат Бидахметович Жамишев</p>	<p>1957년생 (알마티 주) 카자흐농업대학 졸, 경 제학박사</p>	<p>국가독립 후 '할릭' 은행 근무, 노동 및 사회보장부 연금관리청장(1997), 노동 및 사회보장부 차관(1997~1999), 재무부 제1 차관(1999~2001), 내무부, 재무부 제1차관 (2001~2003), '할릭' 은행 부행장 (2003~2004), <u>재무부 장관</u>(2007.11~), 국 가자산운용사 '삼록' 이사회 임원 (2008.4~10), 지속발전기금 '카지나' 이 사회 임원(2008.3~10), '삼록-카지나' 이 사회 임원(2008.10~)</p>
<p>사우아트 민바예프 Сауат Мухаметбаевич Мынбаев</p>	<p>1962년생 (탈디쿠르간 주) 모스크바국립대학 학부 대학원 졸, 경제학 박사</p>	<p>카즈코메르츠은행 제1부회장(1992), 재무 부 차관, 제1차관(1995~1995), 재무부 장 관(1998), 대통령행정실 부실장(1999), 농 업부 장관(1999), 카자흐스탄 개발은행장 (2001), 부총리(2003), 산업통상부 장관 (2004), "'삼록'" 이사회 임원(2006~2007), <u>에너지 및 광물자원부 장관</u>(2007.8~), ' 삼록' 이사회 임원(2007~2008), '삼록-카 지나' 이사회 임원(2008.10~)</p>
<p>알렉산드르 미르체프 Александр Васильевич Мирчев</p>	<p>1957년생 (불가리아), 미 국 국적</p>	<p>Krull Corporation(미국 워싱턴) 사장, 경 제성장 및 현대화에 관한 전략적 결정자 문, 지속발전기금 '카지나' 사외이사 (2007~2008), '삼록-카지나' 이사회 임원, <u>사외이사</u>(2008.10~)</p>

Sir Richard Evans	1942년생 (영국)	영국항공방위산업체 회장(1988), '삼록' 이사회 의장(2006~2008), '삼록-카지나' 이사회 임원, <u>사외이사</u> (2008.10~)
굴잔 몰다좌노바 Гульжан Талаповна Молдажанова	1966년생 카자흐국립대졸, 모스크바 대학 수학박사, 러시아정부 산하 경제아카데미 수료, 경영학 석사	'시베리아 알루미늄' 그룹(모스크바)에서 근무(1995~2000), 러시아 알루미늄 그룹 'Rusal' 영업실장(2000~2003), 'Basic Element(Basel)' 사(모스크바) 전무, '삼록-카지나' 이사회 임원, <u>사외이사</u> (2008.10~)
카이랏 켈립베토프	1969년생 모스크바대학졸, 카자흐스탄 대통령 직속 공공정책대학원 수료	최고경제평의회(Supreme Economic Council) 위원(1996), 전략기획청에서 대통령의 2030 전략기획, 대통령 행정실 사회경제 수석(1998), 전략기획청 청장(1998), 재무부 제1차관(2001~2002), 경제 및 예산기획부 장관(2002~2006), '카지나' 대표이사 (2006~2008), 대통령 행정실장(2008.1~2008.10), '삼록-카지나' 대표이사(2008.10~)

출처: http://www.samruk-kazyna.kz/page.php?page_id=2741&lang=3&parent_id=2731

이어서 '삼록-카지나'의 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고위 경영진을 보면 다음 표6)과 같은데 그 중에서 티무르 쿨리바예프에 대한 분석은 이미 앞에서 설명한 바 있다. 그리고 아르만 두나예프, 카이랏 아이테케노프 이사 등은 경제관련 부처에서 실무를 쌓은 경제전문가이며 아이단 카리브좌노프 이사는 금융기관 및 '카즈무나이가스'사의 중역을 거친 경제통들이다. 그리고 '카즈무나이가스' 사장을 역임한 우작바이 카라발린(Узақбай Сулей менович Карабаллин)은 1990년대 카자흐스탄의 원유-가스 개발 부문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전문가형 엘리트에 속한다. 그는 1997년에 이탈리아 "Agip" 원유회사에 파견되어 유럽식 비즈니스 경영수업을 받고 '카자흐오일' 및 '카스트란스가스' 경영을 거쳐 대통령 행정실에서 근무하기도 하였다. 2001년부터는 '카즈무나이가스' 이사회 의장 겸 카자흐스탄 에너지 및 광물자원부 차관을 맡았다. 2003년에는 '카즈무나이가스'의 경영을 책임지는 최고경영자가 되어 산하 원유-가스 자원회사들을 통괄한 바 있다(Ageev 2008, 112-113). 이어서 '카즈무나이가스'를 이끌고 있는 엘리트는 카이르켈디 카빌딘(Кайргельды Максұтович Кабылдин)은 자원의 보고인 파블로다르 출신으로서 원유-가스 부문에서 실무를 쌓았으며 '카스트란스오일' 경영진을 거쳐 '카즈무나이가스'의 사장 겸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다. 전형적인 전문가형으로서 국영기업의 대표가 된 케이스이다(Ашимбаев 2008, 396).

특히 '카즈무나이가스'사를 통한 티무르 쿨리바예프의 인맥을 볼 때 거대한 '삼록-카지나'를 운용하는 핵심인물은 바로 티무르 쿨리바예프임을 알 수 있다. 티무르의 인맥은 대통령이 인정하

는 인물과도 연결된다고 볼 때 '삼룩-카지나'의 최고의 정점에는 바로 대통령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또한 대통령 전략기획청에서 카자흐스탄 2030 발전방안을 기획하고 대통령 행정실의 수석비서관과 행정실장까지 역임한 카이라트 켈림베토프를 대표이사로 임명하여 '삼룩-카지나'의 경영을 맡긴 것만 보더라도 대통령의 권력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6) '삼룩-카지나' 경영진

성명	직책	주요 학력 및 경력
카이라트 켈림베토프	대표이사	이사회 임원포 참고.
티무르 쿨리바예프	이사 (부사장)	1966년 알마티 출생, 모스크바 국립대졸(경제학 전공), 경제학박사, 카자흐공화국 국가기획위원회 경제전문가로 입문, 'Altyn-Alma' 콘체른 사장(1992~1996), 카자흐스탄 투자문제위원회 위원장(1997), '카자흐오일'사 부사장(1997~2002), 'Transportation of Oil and Gas'사 대표이사(2001~2002), '카즈무나이가스' 제1부사장(2002), 카즈에너지 협회 회장(2005~2008), '삼룩' 부사장(2006~2007), '삼룩-카지나' 부회장(2008.10~)
아르만 두나예프 Арман Галиаскарович Дунаев	이사 (부사장)	1966년 탈디쿠르간 주 출생, 카자흐 국립대졸(정치경제 전공), 모스크바 대학 경제학박사. 카자흐스탄 지방정부 기관에서 입문, 재무부 대외차관 부서 국장(2000), 재무부 차관(2001), 경제 및 예산기획부 차관(2002), 국가혁신펀드 대표이사(2003~2004), 재무부 제1차관(2004~2006), 카자흐스탄 금융시장 및 금융기관 규제 및 감독청 청장(2006), '카지나' 대표이사(2008), '삼룩-카지나' 부사장(2008.10~)
카이라트 아이테케노프 Кайрат Медыбаевич Айтекенов	전무이사	1963년 코스타나이 출생, 카자흐국립경제대 졸 (노동경제학 전공), 대통령 직속 공공정책대학원 수료, 코스타나이 지방정부에서 입문, 1997년까지 코스타나이 지방에서 근무, 환경부 환경위원회 위원(1998~2002), 경제 및 예산기획부 국장(2003), 관광체육부 차관(2006~2007), "카지나" 부회장(2007), '삼룩-카지나' 전무이사(2008.10~)
아이단 카리브좌노프 Айдан Табоиязович Карибжанов	전무이사	1971년 알마티 출생, 모스크바국제관계대학 졸, 국제관계학 전공. 카자흐스탄 프랑스 은행 자문위원(1992), 'Global Kazkommerts Securities' 부회장(1995~1997), 투자은행 'Global Kazkommerts' 부회장(1997~2001), 'Visor Holding'사 전무이사(2001~2004), 국영회사 '카즈무나이가스' 전무이사(2004), 'Visor Holding'사 이사회 의장(2005~2007), '삼룩-카지나' 전무이사(2008.10~)

출처: http://www.samruk-kazyna.kz/page.php?page_id=2531&lang=1&parent_id=5

'삼룩-카지나'에서 관할하는 회사들이 많아질수록 재계에 대한 국가통제력은 비등하게 된다. 현재 자회사 형태로 '삼룩-카지나'의 관할 하에 있는 회사는 '카즈무나이가스', '카자흐국영철도', '카자흐우체국', '파블로다르 공항' 등 국가의 주요 기간산업과 투자관련 금융기관 그리고 2009년에 국유화된 알리안스 은행 등 22개사가 있는데 이들 회사는 100% 지분이 '삼룩-카지나'에 있다. 이 밖에 '삼룩-카지나'가 대부분의 지분 비율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도 19개사가 되는데 대표적으로 BTA 은행(75.1%), 에어-아스타나(51%), 카자흐텔레콤(45.9%), 카즈코메르츠뱅크(21.26%) 등이 있다.²⁷⁾ 지금까지 '삼룩-카지나'의 영향력은 상승기조에 있었고 그 관할 회사들이 주로 카자흐스탄 경제의 중추적인 부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되는 핵심 인사들이야말로 정통 재계 엘리트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IV. 재계 엘리트와 정치권력

카자흐스탄의 재계 엘리트들은 주로 국가의 기간산업에 해당하는 에너지 및 자원 부문과 금융 부문²⁸⁾을 통하여 재력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최고의 정치권력 세력과의 직, 간접적인 연관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정경유착의 정도는 시장경제가 발전한 어느 국가에서나 발견되는 문체이기는 하지만 대통령의 권력집중도가 매우 높은 카자흐스탄에서는 보다 더 현저한 특징으로 나타난다.²⁹⁾ 이 특징은 바로 대통령과 연결되지 않으면 거대한 경제적 부를 획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정치권력 엘리트 외에 재계 엘리트들이 최고 권력자를 중심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뜻인데 부족소속을 초월한 '이익추구'를 중심으로 한 일종의 재계의 계파가 형성된다는 뜻이다.

카자흐스탄의 사회평론가 다니야르 아쉽바예프는 "최근 20년 동안 우리는 다시 '과거의 환상'과 마주치고 있는데 전문적인 자질이 재차 제일의 우선순위로 평가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 오늘날 부족 소속이 결정적인 것은 아니며 오히려 개인적인 인간관계가 중요하다. 현재 중시되고 있는 요건은 동기생, 동창생, 사업동지, 친구, 이웃 등이다. 특히 이러한 점은 거대 재벌에

27) 이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은 '삼룩-카지나'의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 '삼룩-카지나'는 <카자흐미스>에도 14.99%, ENRC 에도 11.65%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http://www.samruk-kazyna.kz/page.php?page_id=2747&lang=3&parent_id=2731 (2010.3.18 검색)

http://www.samruk-kazyna.kz/page.php?page_id=14&lang=1&parent_id=5 (2010.3.18 검색)

28) 이때 금융 부문을 말할 때는 비단 은행에 대한 지배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확대된 구조적 보험, 대부은행, 리스, 브로커, 컨설팅 회사, 연금재단, 자은행을 포함하는 미니 제국을 말한다. 은행이 '단순한' 금융기관의 역할을 하지 않는 것은 오래 전의 일이며 은행소유주 중에는 주요 정부관료들이 있다. 정부, 국립은행 및 재정기관의 장들은 금융 경영인 출신들이 많다. 은행 (혹은 은행소유주)은 언론과 일부 정당 및 사회단체 등을 지배한다. 행정부 권력과 은행가 로비 간의 지난 정치적 갈등이 한 두 번이 아니었다. <http://www.nomad.su/?a=2-200703120012> (2010.1.10 검색)

29) 독립 이후 카자흐스탄의 기업체 부문은 정부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다. 1995년 당시 약 27%의 기업체가 정부를 위해 일하고 있었고 2001년에도 여전히 정부와 민간 영역에서 상호연관성을 가지고 활동하였다(Murphy 2006, 546).

서 드러나고 있다.”³⁰⁾ 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그만큼 특정 인물을 중심으로 한 집단, 파벌, 계파, 그룹 등이 쥘즈 소속감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며 특히 재계 집단의 경우는 더욱 더 정도가 뚜렷하다는 것이다.

재계 엘리트의 그룹 속에 포함되려면 대통령의 친인척군, 혹은 대통령 보좌관, 장관 등 공직으로 인한 인맥, 카라간다 콤포시 시절의 인맥³¹⁾ 등 인적 네트워크 상에 얽여있는 인물들이어야 한다. 쥘즈 소속 및 전문성도 중요한 요소이지만 현재는 그 비중이 점차 낮아지고 대통령과의 공식적 및 직, 간접적인 인적 연결이 필수적인 것이다. 그야말로 재계와 정계를 통괄하고 사실상 조정자 역할을 하는 인물이 바로 대통령이라고 지적하는 전문가도 있다(Kjærnet et. al. 2008, 103).

심지어 1990년대와 2000년대 전반기까지만 하더라도 대통령에 우호적이지 않았던 알렉산드르 마쉬케비치, 파토흐 쇼디예프, 알리잔 이브라기모프 등 이른바 유라시아파 부호들도 2005년 대통령 선거 이후 친대통령 노선으로 전환하였다.³²⁾ 즉 자신들이 이끌던 카자흐스탄 농민당과 카자흐스탄 시민당을 결국 2007년에 대통령이 주도하는 누르오타당에 흡수시켰던 것이다. 또 한 사람의 억만장자인 누르잔 수브한베르딘은 야당격인 악졸(Ак Жол)당과 관계를 가지고 있었는데 악졸당의 당수 및 주요 리더인 알리한 바이메노프(Алихан Мухамедъевич Бай менов)와 우라즈 잔도소프(Ураз Алиевич Джандосов)는 전직 장관 및 부총리 출신으로서 수브한베르딘과 가까운 사람들이었다(Kjærnet et. al. 2008, 103). 그러나 이러한 친야당적 움직임은 1990년대에 있었던 것이었으며 2000년대에는 친대통령 성향으로 전환되면서 카즈코메르츠뱅크를 지킬 수 있었다. 그리고 2009년에 <포브스> 억만장자 리스트에 올랐던 BCC 은행의 바히트백 바이세이토프는 여당인 누르오타 당원이다. 카자흐스탄 최고의 부자 '카자흐미스'의 블라디미르 김이 나자르바예프 대통령과 가족관계에 있지는 않지만 가장 가까운 측근 중의 측근임은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³³⁾ 또 한 사람의 억만장자(2008년에 단 한번) 블라트 우테무라토프 역시 대통령 비

30) <http://www.dialog.kz/?lan=ru&id=81&pub=1739> (2010.1.10 검색)

31) 카비볼라 사레케노프(Кабидолла Зулкашевич Саркенов, 1942년생)는 서카자흐스탄 지방의 국영농장 출신이었는데 카라간다 공대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하고 알마아타의 공산당 학교에서 정치수업을 받았다. 1974년에 사레케노프는 카라간다 금속콤비나트에서 일하였다. 거기서 4년간 공장 당조직 부서기로 일하고, 그때 당조직의 1서기로 일했던 사람이 바로 나자르바예프였다. 1980년대에 사레케노프는 여러 당 조직에서 일하였고 이후 크람스(КРАМДС)사 철강산업부를 경영하였다. 그리고 4년간 아스타나 세무위원회 의장으로서 재차 공직에 복귀하였고 이후 전략물자 자원위원회 의장으로 임명되어 활동한 바 있다(Murphy 2006, 546).

32) 2000년 전후 시기만 하더라도 나자르바예프를 반대하던 진영이 공공연히 존재하고 있었다. 세릭 스바토프(Серик Аманжолович Святков, 1954년생)는 1989년부터 소련붕괴까지 카자흐 공산당 중앙위원회 감사위원이었는데 독립 후 시장개혁그룹단의 일원으로 나자르바예프 정부에 참여하였다. 1997년부터 2002년까지 알마티 상업은행 부은행장으로 일하면서 알렉 은행의 구조조정을 감독하였고 동시에 할릭 은행으로 보내어졌다. 그러나 2001년 할릭 은행의 투명하지 못한 민영화 정책으로 인하여 많은 수의 엘리트들과 함께 나자르바예프 진영에서 이탈하여 야당을 결성한 바 있다(Murphy 2006, 547).

33) 블라디미르 김은 대통령 총무실장을 역임한 바 있는 블라디미르 니(Владимир Васильевич Ни)와 함께 나자르바예프 고려인 이너서클을 구성하고 있다. 블라디미르 니는 현재 표면적으로 연금생활자로 분류되어 있다.

서실장을 역임한 대통령 측근이었다. 이렇게 본다면 억만장자들은 모두 대통령과 근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임을 알 수 있으며 역으로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이 되어야만 최대의 부를 축적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바로 이 점에서 소수의 재계엘리트에 속하는 재벌(러시아식으로 올리가르히)인 산업-금융 그룹이 정치권력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카자흐스탄 재벌에는 엘친 당시의 러시아 올리가르히와는 달리 대통령 '가족'들에도 포함된다(Кан 2006, 149). 카자흐스탄에서 나자르바예프 가족은 재계 부문에서 두각을 나타내면서도 동시에 정치권력을 동시에 소유하고 있다.

우선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의 장녀 다리가는 자신의 정당(아사르당- 2006년에 여당인 누르오탄에 통합)과 주요미디어회사를 소유하고 있었고 그녀의 남편 라하트 알리에프는 2005년 7월에 외교부 제1차관으로 기용되었다(Hill 2005, 7). 알리에프는 오스트리아 대사 및 국가보안위원회 부의장을 역임한 바 있다. 물론 2007년 이후 알리에프의 운명은 180도로 바뀌게 되지만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가 가지고 있던 재계와 정계에 대한 높은 파워로 인해 차세대 대권주자로 예상될 정도였다.³⁴⁾ 알리에프는 스스로 말하듯이 자신은 비즈니스맨이지 정치가는 아니며 더구나 국가의 자원을 담보로 부를 축적하는 사업가는 더더욱 아니라고 한다.³⁵⁾ 체제변환기에 설탕 공장을 토대로 재계에 입문한 뒤 누르뱅크(은행)와 자체 신문, 방송을 부인 다리가와 함께 소유한 알리에프는 최소한 1999년 권력기관에 발탁되기 전까지 특유의 전문사업가였다.³⁶⁾ 물론 이 과정에서 대통령의 특별한 후광이 있었음도 인정하고 있는 알리에프는 동시에 대통령의 권유로 관계에 입문한 후 시련을 겪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³⁷⁾ 2010년 현재 알리에프는 국가 공적 제1호로 유죄 판결된 상태에서 오스트리아에서 망명생활을 하고 있다.

알리에프와 유사한 권력을 가졌던 대통령 가족으로는 둘째 사위인 티무르 쿨리바예프 부부가 있다. 억만장자로서의 티무르에 대한 언급은 이미 한 바 있지만 그가 자신의 부인 즉 대통령의 둘째 딸 디나라와 함께 국가의 주요자원을 토대로 성장한 재계 엘리트라는 것이 알리에프의 경우와 차이가 있다. 티무르 쿨리바예프는 '카르트란스오일' 사장으로서 그리고 "삼록" 부사장 그

34) 카자흐스탄 엘리트에 대하여 소련 시기와 독립 이후 10년간의 시기를 통하여 비교 분석하고 있는 아부예바는 권력엘리트의 민족별 구성, 여성 비율, 지방출신별 분석 등을 제시하면서 흥미로운 견해를 보여 주었다. 즉 카자흐스탄의 최고 영향력 있는 인물에 대하여 나자르바예프 대통령 다음으로 첫째 사위인 라하트 알리에프를 두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볼 때 최소한 2001년까지는 알리에프의 권력이 매우 강했음을 알 수 있다(Абуева 2002, 217).

35) 이러한 알리에프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이에 반대되는 견해도 있다. 즉 알리에프가 최초 설탕업계에 진출할 때 상대진영을 강압적인 방법으로 파산시키고 혈값에 매각하도록 했다는 것이 전 야당 지도자 블라트 아빌로프(Булат Абилов)의 주장이다(Junisbai 2010, 249).

36) 기업체 외에도 신문인 <Новое Поколение(신세대)>, <Караван(카라반)> 그리고 방송채널 НТК(Независимый Телевизионный Канал: 독립방송채널), КТК(Коммерческий Телевизионный Канал: 상업방송채널), ОРТ-Казахстан(오에르테-카자흐스탄), TV방송사인 Хавар(하바르), 그리고 라디오 방송쪽에는 Europa-Plus, Hit-FM, Russkoe Radio, Radio Retro, 그리고 Kazakhstan-Today News Agency, Alma Media, TV-media 등을 소유한 알리에프 부부는 언론재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Junisbai 2010, 249).

51) 이 점에 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겠으나 알리에프 본인의 의사가 표명된 것이다.

리고 '삼룩-카지나' 부사장으로서 카자흐스탄 경제계를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대통령 가족이다. 티무르 쿨리바예프는 특별히 고위관료 등 국가권력기관의 경험이나 정당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는 점이 알리에프의 경우와 다르다. 그러나 그가 정계에 직접적인 이력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정도의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다니야르 아습바예프 또한 티무르 쿨리바예프의 거대한 파워에 대해 "오늘날 카자흐스탄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세력은 쿨리바예프 그룹인 것 같다. 이러한 쿨리바예프 '사단(clan)'³⁸⁾은 국영회사 및 정부기관 등에 포진되어 있다."³⁹⁾라고 지적하고 있다.

2007년에 총리로 그리고 2008년에는 '삼룩-카지나'의 이사회 의장으로 임명된 카림 마시모프(Карим Кажимканович Масимов)는 대표적인 쿨리바예프 인맥에 속한다. 대통령과도 개인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지적하고 있는 알리에프가 보기에 카림 마시모프 총리는 현재 행정부 최고의 실무자로서 그리고 재계의 리더로서 대표하고 있다.⁴⁰⁾ 쿨리바예프는 자신의 인맥에 속하는 카림 마시모프를 통하여 정부에 관여할 수 있는 방편을 마련하는 한편 자신은 국가자원과 금융을 통한 경제적 영역을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티무르 쿨리바예프는 2010년 현재 위기의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BTA 은행의 국유화 조치로 인하여 2009년 2월에 유럽으로 망명한 무하타르 아블라조프의 고발에 의하면 2003년 악토베무나이가스 원유가스 회사를 중국 국영회사 CNPC 측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티무르 쿨리바예프가 무려 1억 7천만불이라는 거금을 뇌물로 받았다는 것이다.⁴¹⁾ 이 고발로 인하여 현재 티무르 쿨리바예프는 도덕적으로 최대 위기에 빠져있는 상황이며 야당 진영에서도 정치문제화할 움

38) 여기서 이제 'clan', 'клан' 등의 용어가 단지 고유의 의미인 '씨족'에만 한정되지 않는 보다 넓은 개념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 'clan'이 혈연적 차원에서 언급되는 것이라면 당연히 '씨족'이라고 해야 할 것이나, 그렇지 않고 자파세력, 그룹, 동향, 계파, 사단(군사적 의미가 아닌) 등의 의미로도 사용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후자의 경우로 사용될 때 clan은 '가까운 이웃', 동창생, 친구, 사업동지 등 비공식적, 사적으로 맺어진 개인적 네트워크를 의미한다. 문맥을 파악하면서 우리말로 적절히 표현하기를 제안한다. 이에 관한 설명은 이미 샬리 커밍스나 다니야르 아습바예프도 행한 바 있다 (Cummings 2005, 138-139).

39) <http://www.dialog.kz/?lan=ru&id=81&pub=1739> (2010.1.10 검색)

40) 카림 마시모프는 위구르임에도 불구하고 민족의 정체를 모호하게 하고 있고 카자흐인처럼 위장하고 있다는 것이 알리에프의 지적이다. 민족차별이 없는 카자흐스탄 사회에서 비카자흐인이라는 것이 중요한 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카림 마시모프의 민족적 배경에 대해서 모호하게 처리하고 있는 것은 대통령의 비호가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만큼 재정적인 면에서 대통령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매우 깊다는 것이다. 인명록에 나타난 공개적 이력사항을 보더라도 카림 마시모프가 중국에서 수학한 경력 외에 위구르인이라는 것을 찾아보기 힘들다(Ашшмбаев 2008, 551).

41) 2010년 1월에 폭로된 사실에 의하면 당시 카자흐스탄 원유가스회사의 25% 가치는 3억 5천만불이었는데 중국에 1억 5천만불만 받고 넘겼으며 나머지 차액은 쿨리바예프가 뇌물로 받았다는 것이다. 나자르바예프 정부가 최근 중국에 농지 100만 ha를 무상 임대해 주기로 결정한 것은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 아블라조프의 주장이다. 알마티에서는 1월에 이에 항의하는 시위가 발생하였다.

http://www.rferl.org/content/Kazakhs_Protest_Against_Chinas_Growing_Influence/1944085.html (2010.1.15 검색)

http://www.rferl.org/content/Kazakh_ExBanker_Says_Nazarbaev_Relative_Bribed_By_China/1935104.html (2010.1.15 검색)

직임이 벌어지고 있지만 그 효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미지수이다.⁴²⁾ '뇌물'을 초대형 비즈니스 성공을 위한 로비자금으로 생각한다면 중국의 국영회사가 단순히 일개 사업가를 대상으로 행한 일로서 볼 수는 없다. 이미 중국은 티무르 쿨리바예프를 재계-정계를 연결짓는 중요한 거물엘리트로서 간주했기 때문에 일종의 '투자가치'로서 교섭했을 것이다. 이 점이 바로 재계와 정계가 독립되지 못하고 상호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카자흐스탄 국가의 특성을 말해주고 있다. 곧 재계 엘리트에 속하는 '거물'은 대개 정치적 파워도 지니고 있는데 중요한 점은 대통령의 측근에 속하는 인물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통령 측근의 재계 엘리트들에 관해서는 이미 이 글을 통하여 고찰하였기 때문에 재차 부연설명할 필요는 없으나 알리에프의 경우처럼 그들의 미래운명에 대해서도 단정지을 수 없는 점 또한 카자흐스탄 국가 재계엘리트가 처한 불확실성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지금은 대통령 측근으로서 재계엘리트로 간주되고 있지만 가까운 미래 혹은 그 이상의 시기에 어떻게 지위가 변화될 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는 뜻이다.

재계 엘리트들이 정치권력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사실 카자흐스탄에만 국한되는 일이 아니지만 대통령의 권력이 매우 강하고 대통령 주변에 재계 엘리트들이 적, 간접적으로 포진하고 있다는 사실은 뚜렷해진다. 동시에 경제가 성장하면서 민간부문과 국가부문(국영기업) 간에 나타나는 상호경쟁적 영역 확보에서 국가부문의 역할이 점증하고 있는데,⁴³⁾ 2008년의 '삼륙-카지나'의 출범, 2009년의 주요 민간은행의 국유화 조치 등이 이를 반증한다.

V. 결 론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카자흐스탄은 1990년대 이후 도입된 시장경제 제도와 외국자본의 투자 허용정책을 기반으로 유가의 상승과 함께 높은 경제 성장을 기록하였고, 이와 함께 경제적 재력을 갖춘 금융-산업 그룹(재벌)들이 형성되어 재계의 엘리트들을 형성하였다. 카자흐스탄 경제력의 근간은 원유, 가스, 광물자원을 비롯하여 금융 부문으로 되어 있고 이들 엘리트들의 비즈니스도 이러한 자원과 금융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카자흐스탄 자원경제의 바탕이 되는 기업은 '카즈무나이가스'사를 언급할 수 있는데 외국 석유메이저와 중국 국영석유회사와 시장 점유율을 두고 경쟁적인 입장에 놓여 있다. 광물자원 또한 '카자흐미스'와 ENRC가 중심이 되어 시장을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을

42) 티무르 쿨리바예프의 행보는 외형적으로 재계활동에만 치우치고 있다. 정치적인 우위가 곧 자신의 몰락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례는 이미 알리에프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카자흐스탄 권력승계에 대한 지속적인 분석을 하고 있는 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조사된 바에 의하면 현재 카자흐스탄 제2인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에 티무르는 아스타나 시장 이만갈리 타스마감베토프(Имангали Тасмагамбетов)에 이어 두 번째로 랭크되어 있다.

<http://www.nomad.su/?vt=3&vn=200912310002>

43) 자본주의 체제 하의 기업 발전에 관한 국가개입 여부에 대해 니콜라 포포비치(Никола Попович) '카즈친크' 사장은 "기업활동을 하려면 국가체제가 안정되어 있는 것이 좋다. 현재 카자흐스탄은 안정된 체제이다"라고 하면서 정치적 안정을 기업활동의 최우선으로 두고 있다(Areev et. al. 2008, 267).

활용한 재계 인사들은 세계적 수준을 재력을 축적할 수 있었다. 금융 부문 또한 카자흐스탄에서 성장을 거듭하였으나 현재는 미국 금융위기의 여파로 일단 구조조정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이 과정에서 카자흐스탄 최고의 은행들이 국유화되었고 이들 은행 경영자들은 몰락하였다.

대체적으로 경제적 변화를 거듭한 카자흐스탄에서 재계 엘리트에 해당하는 금융-산업가 집단은 크게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순수 민간인 기업가로 볼 수 있는 집단이며 다른 하나는 국영기업의 임원들이 경제 관료집단이다. 순수 민간인 기업가 집단은 원유, 가스, 금속광물을 토대로 사업에 성공한 사람들이며 세계적인 금융저널인 <포브스>에 등재되는 재벌들이다. 지금까지 카자흐스탄 억만장자는 모두 9명인데 그 중에서 가장 큰 부호는 '카자흐미스' 회사 소유주인 블라디미르 김이다. 그리고 알렉산드르 마쉬케비치, 파토히 쇼디예프, 알리잔 이브라기모프 등도 자원을 토대로 한 세계적 억만장자 그룹에 속한다. 그리고 누르잔 수브한베르딘, 블라트 우테무라토프, 바히트백 바이세프 등도 금융 부문의 재계엘리트들이다. 무엇보다도 티무르 쿨리바예프 부부는 대통령의 사위인 동시에 원유와 가스산업 그리고 금융기관을 소유한 재벌에 속한다.

그리고 또 하나의 비즈니스 엘리트 그룹에 속하는 집단은 바로 국가복지펀드사인 '삼룩-카지나'의 임원들이다. 2006년에 출범한 국가자산운용사 '삼룩'은 2008년에 지속가능발전기금인 '카지나'와 합병하여 거대 국가투자펀드인 '삼룩-카지나'를 형성시켰고 이들 임원진들은 거의 장관급 경제관료들인데 수장에 해당하는 이사회 의장은 바로 총리 카림 마시모프가 맡고 있다. 실제 경영진에는 부사장에 해당하는 티무르 쿨리바예프가 있어 티무르는 사실상 '삼룩-카지나'를 움직이는 실세라고 간주된다. 티무르 쿨리바예프는 세계의 억만장자로서 알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복지펀드를 실제 경영하는 임원으로 활동하면서 사실상 민간 부문과 정부 부문을 통괄하는 거대한 재계 실력자로 간주된다. '삼룩-카지나'의 임원들은 거의 모두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들이므로 사실상 대통령의 영향력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억만장자나 '삼룩-카지나'의 임원들의 성장에는 대통령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의 지원없이 불가능하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다시 말하면 대통령이 지원하지 않는 거대 비즈니스는 성공할 수 없으며 재력도 축적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따라서 현재 카자흐스탄에서 비즈니스 엘리트라고 할 수 있는 억만장자와 '삼룩-카지나' 임원들은 대통령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으며 대통령에 우호적인 인물들이다. 이 뜻은 카자흐스탄에서 큰 비즈니스를 하려면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뜻이고 동시에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만이 비즈니스 엘리트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참 고 문 헌

- 고안나 (2009). "카자흐스탄 은행산업 최근 동향 및 전망."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해외경제투자정보>. pp. 1-7.
http://www.koreaexim.go.kr/kr/file/nation/090529_KZ_Banking_Industry.pdf
 (2010.1.10 검색)
- 김상철 (2009/2010). "현대 카자흐스탄 엘리트 제도와 형성과정." <중소연구> 한양대아태지역연구센터/중국문제연구소. 제33권 제4호. 겨울. pp. 187-220.
- 이재영 외 (2009). 『카자흐스탄 정치엘리트와 권력구조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이재유 · 이재영 (2000). 『이행기 러시아의 비즈니스 엘리트 형성과 경제적 역할』. 국제무역경영연구원.
- 이재영 · 고재남 · 박상남 · 이지은 (2009). 『카자흐스탄 정치 엘리트와 권력구조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최우익 (1998) "현대 러시아 비즈니스 엘리트의 형성과 성격에 대한 연구." <러시아연구>. 제8권. 제2호. pp. 297-327.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동북아팀 (2008), <해외경제-투자정보> 7-8쪽.
- Cummings, Sally N. (2005). *Kazakhstan: Power and the Elite*. London: I.B.Tauris & Co Ltd.
- _____. (2006). "Legitimation and Identification in Kazakhstan," *Nationalism and Ethnic Politics*, Vol. 12, Issue 2, July, pp. 177-204.
- Hill, Fiona (2005). "Whither Kazakhstan?" <The National Interest>. October. pp. 1-18.
<http://www.inthenationalinterest.com> (2010년 1월 15일 검색)
- Irnazarov, Farrukh K. (2010). "Transition Strategies in Kazakhstan and Uzbekistan since Independence: Paradoxes and Prospects," pp. 1-42.
<http://community.esnie.org/students/30.html> (2010년 1월 15일 검색)
- Junisbai, Barbara (2010). "A Tale of Two Kazakhstans: Sources of Political Cleavage and Conflict in the Post-Soviet Period." *Europe-Asia Studies*. Vol. 62, No. 2. March. pp. 235-269.
- Kjærnet, Heidi. Dosym Satpaev. Stina Torjesen (2008). "Big Business and High-level Politics in Kazakhstan: An Everlasting Symbiosis?" *China and Eurasia Forum Quarterly*. Volume 6. No. 1. pp. 95-107.
- Murphy, Jonathan (2006). "Illusory Transition? Elite Reconstitution in Kazakhstan, 1989-2002." *Europe-Asia Studies*. Vol. 58, No. 4, June. pp. 523-554.
- Simon, György (2009). "Market Reforms and 'Economic Miracle' in Kazakhstan." <Economic Annals>. Vol. LIV. No. 182, July-September. pp. 67-92.
- Абуева, Н.А. (2002). *Становление властвующей элиты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проблемы и перспективы. Алматы: Алматин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Университет им. Абая.

Агеев, Александр. Ануар Бай шуаков. Ерлан Сей тимов (2008). *Элита Казахстана: Власть-Бизнес-Общество.* Алматы: ИНЭС-ЦА.

Асылбеков, А. З. (2008) *Кто есть Кто: Промышленность Казахстана.* Алматы.

Ашимбаев, Данияр (2008). *Кто есть кто в Казахстане: Биографическая энциклопедия 2007-08.* Алматы.

____ (2010). "ЭЛИТА ВИДИТ В НУРСУЛТАНЕ НАЗАРБАЕВЕ АРИБТРА В СВОИХ КОНФЛИКТАХ" <http://www.dialog.kz/?lan=ru&id=81&pub=1739> (2010년 1월 10일 검색)

____ и др. (2008). *Казахстан: История власти - опыт реконструкции.* Алматы: CREDOS.

Кан Пхён Ки (2006). "Постсоветские элиты России, Казахстана, Узбекистана. Сравнение и оценка." *Социологические исследования.* No. 1. с. 147-152.

http://www.isras.ru/files/File/Socis/1-6-2006/kan_pxen_ki.pdf (2010년 1월 15일 검색)

Морозов, А. А. (2005). *Казахстан за годы независимости.* Алматы: Казахстанский институт стратегических исследований при Президенте РК.

<http://ozs.mofcom.gov.cn/table/kaza/banking.pdf> (2010년 1월 15일 검색)

<http://ozs.mofcom.gov.cn/table/kaza/banking.pdf> (2010년 1월 15일 검색)

http://eng.centercredit.kz/temp/fdbcc_9m2009.pdf (2010년 1월 10일 검색)

<http://eng.centercredit.kz/news/2501101.html> (2010년 1월 10일 검색)

<http://albinvestorrelations.com/about/aboutalb/history/> (2010년 1월 10일 검색)

<http://albinvestorrelations.com/about/aboutalb/> (2010년 1월 10일 검색)

<http://ru.kkb.kz/retail/page/Homebank> (2010년 1월 15일 검색)

http://www.forbes.com/lists/2009/10/billionaires-2009-richest-people_Alijan-Ibragimov_71ZC.html (2010년 1월 12일 검색)

http://www.forbes.com/lists/2009/10/billionaires-2009-richest-people_Bakhytbek-Baiseitov_O28L.html (2010년 1월 12일 검색)

<http://www.nomad.su/?a=4-200612120615> (2010년 1월 10일 검색)

<http://www.nomad.su/?a=2-200703120012> (2010년 1월 10일 검색)

<http://www.nomad.su/?vt=3&vn=200912310002> (2010년 1월 10일 검색)

http://www.samruk-kazyna.kz/page.php?page_id=6&lang=1&parent_id=5 (2010년 3월 19일 검색)

http://www.samruk-kazyna.kz/page.php?page_id=14&lang=1&parent_id=5 (2010년 3월 18일 검색)

http://www.samruk-kazyna.kz/page.php?page_id=2747&lang=3&parent_id=2731 (2010년 3월 18일 검색)

http://www.rferl.org/content/Kazakhs_Protest_Against_Chinas_Growing_Influence/1944085.html (2010년 1월 15일 검색)

http://www.rferl.org/content/Kazakh_ExBanker_Says_Nazarbaev_Relative_Bribed_By_China/1935104.html (2010년 1월 15일 검색)

Abstract

The Situational Aspects of Kazakhstan's Business Sectors and the Characteristics of Business Elites – focused on their Relations with Political Power

Hwang, Youngsarm*

Kazakhstan's economy growth and business development produced business elite groups since the mid-2000s. These elites can be largely divided into two groups: one that can be viewed as purely civilian group of entrepreneurs and the other that are executives of nationalized companies – bureaucratic business elites in this paper.

A group of purely civilian entrepreneurs, in other words financial-industrial group, accumulated big wealth based on the business of oil, gas, metals, minerals and banks and some of them are announced by the journal <Forbes> as world billionaire. Until this year 9 business elites are recorded as world billionaires in Kazakhstan, among them Vladimir Kim of "Kazakhmys" Corporation is the wealthiest. Analyzing these billionaires more minutely, we can find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these wealthy men and the political power – the President.

The other business elite group in this paper is leading members of the National Welfare Fund "Samruk-Kazyna". The chairman of the board of directors is Prime Minister of Kazakhstan but the key person is the very Timur Kulibaev who is also <Forbes> billionaire. He occupies the post of Deputy CEO of "Samruk-Kazyna" and gets confidence from the President. All the leading members of the National Fund including 5 ministers concerning economic ministries are appointed by the President, they belong to a friendly group with Nursultan Nazarbaev.

In conclusion all the business elites in Kazakhstan today are very close to the President and are associated with political power. Thinking this fact reversely, no one can obtain success in doing business without the aids of the President as far as big business like oil, gas, mineral resources and even financial sectors are concerned.

■ 논문접수일 : 2010년 3월 20일, 논문심사일 : 2010년 4월 8일, 게재확정일 : 2010년 4월 20일